

# 奎章閣 所藏 近代國語 文獻資料의 綜合的 研究

洪 允 杓

- |         |           |
|---------|-----------|
| I. 序 論  | III. 解 題  |
| II. 目 錄 | IV. 맺 는 말 |

## I. 序 論

國語史 研究에서 국어는 古代國語, 中世國語, 近代國語, 現代國語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국어사 시대구분상의 각 국어를 연구하는 일은 문헌자료의 발굴과 이의 소개라고 하는 기초적인 작업에서 출발된다고 할 수 있다.

安秉禧 教授의 中世國語 文獻資料에 대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많은 국어사 연구자, 그중에서도 중세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은 기초적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중세국어 연구가 더욱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근대국어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각 연구논저에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다. 특히 근대국어 문헌자료를 가장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연구자료도 이와 동일한 실정에 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검토되어 온 근대국어 시기의 각 문헌에 대한 재검토와 이를 종합하여 근대국어를 연구하려는 국어학자에게 제공하는 일은 국어학자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일은 국어학 연구의 本領이 아니라 국어학계의 깊은 인식 때문에, 국어학자들에게 거의 외면당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사 연구가 그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에 간행된 한글자료 문헌은 중세국어 시기의 자료에 비한다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이 방대한 자료에 대해 신빙할 만한 解題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국어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

이다. 그러나 이 문헌들은 우선 그 양에 있어서 방대하다. 이 방대한 자료의 상당수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규장각 소장의 문헌 중에서 어느 문헌이 근대국어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근대국어 시기의 한글자료 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행하려 하는 연구자에게 심한 어려움을 안겨 주어 왔다.

근대국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문헌은 일본인 小倉進平의 『朝鮮語學史』 및 최현배의 『한글갈』에 불과한 편이다. 그러나 이 문헌들은 새로 발굴된 많은 문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해제도 국어학적인 해제가 아니라 일반 서지학적인 해제이기 때문에, 국어학도에게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국어학계의 과제로 되어 있는, 근대국어 연구를 위한 문헌 자료들에 대해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들을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들도 그 방대한 양에 비해, 그리고 그 문헌의 전체적인 면에 비해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적인 개개 문헌의 검토만으로는 근대국어 연구를 위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필자는 그 작업을 종합화하는 일을 의도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연구작업을 1차적으로 마무리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 종합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학계에 소개된다고 한다면, 근대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근대국어를 연구하기 위한 문헌자료로서 어떠한 문헌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용이하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국어학적인 해제를 통하여 국어사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국어를 연구하기 위한 문헌 전반을 다루기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1차적인 작업을 종합화하는 일이다. (1)

(1) 이 원고는 원래 書誌的인 것과 國語學的인 解題를 자세히 쓴 것이었으나, 원고의 양 때문에 부득이 이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각 文獻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업적이나 해제 등을 참고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이를 종합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두었기에 일일이 註를 달지 않았다. 또한 여기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Ⅱ. 目 錄

이 작업을 위해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일은 우선 목록을 작성하는 일일 것이다. 우선 근대국어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중에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작성되었던 목록을 부득이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국어를 연구하기 위한 문헌자료의 목록은拙著인 『近代國語研究(I)』(1994)를 참고하기 바란다.

## Ⅲ. 解 題

### 1. 周易諺解

『周易』에 한글로 토를 달고 우리글로 直譯하여 9권 6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最古本으로는 1606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內賜記가 있는 책이 있다. 이 『주역언해』는 선조때에 校正廳에서 언해한 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정청의 三經諺解는 간행되지 못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비로소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初刊本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에 있는데, 內賜記가 있어서 1606년(선조 39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고본에다 임진왜란 이후 다시 손질하여 비로소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교정청의 원고본에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주역언해』는 원래 선조의 명에 의하여 교정청에서 1585년(선조 18년)~1593년 사이에 언해된 것으로 보이나 간행되지 못하고, 임진왜란 이후 원고본에 방점을 없애고 표기상의 수정을 가하여 1606년에 간행한 것이다. 1992년에 弘文閣에서 이를 영인하였다.

### 2. 諺解痘瘡集要

御醫 許浚이 宣祖의 명에 의하여 1601년(宣祖 34년)에 편찬하여 1608년에 內醫院에서 上下 2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해 낸 醫書다. 한문 원문에는 夾注가 달려 있으나 언해문에는 夾註가 없다. 서울대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73년에 이를 亞細亞文化社에서 영인하였으나 그 目錄과 跋文은 빠져 있다. 卷上 23a가 落張으로 되어 있고 卷上 26b에는 落刻이 보이며 卷上 31b에는 붓으로 加筆한 부분이 있다. 영인본을 자료로 삼을 때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 3. 諺解胎產集要

御醫 許浚이 宣祖의 명에 의하여 1608년(宣祖 34년)에 內醫院에서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해 낸 醫書다. 妊娠에서 解産에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藥의 處方과 病의 治療法 및 여러 가지 요령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序, 跋은 없으나 『諺解痘瘡集要』의 跋文과 책의 末尾에 刊記가 있다. 한문 원문에 이어 언해문이 이어지며 언해문은 한글로만 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서울대 가람문고에는 이의 筆寫本도 전한다. 1973년에 亞細亞文化社에서 『諺解痘瘡集要』 『諺解痘瘡經驗方』 『諺解臘藥症治方』 『諺解救急方』 등의 醫書들과 함께 合本하여 영인하였다.

### 4. 經書釋義

李滉이 儒學의 核心經典인 周易 書經 詩經의 三經과 論語 孟子 中庸 大學의 四書에 대한 先賢들의 註釋을 모으고 또 제자들과 講論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1609년(光海君 1년)에 李滉의 門人인 琴應壘이 임진왜란의 兵火로 잃어 버린 李滉의 ‘自淨錄’을 士友間에 傳寫되던 것을 구하여 8권 2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하였다. 周易釋義 上下, 書釋義, 詩釋義, 論語釋義, 孟子釋義, 中庸釋義, 大學釋義의 순서로 분류하여 그 중요한 부분을 뽑아 國文으로 설명하였다. 大學釋義의 끝에 琴應壘의 跋文이 있다. 一名 『三經四書釋義』라고도 한다. 1978년에 성균관대 大東文化研究院에서 영인하였다.

### 5. 練兵指南

1612년(光海君 4년)에 教練官 副司果인 韓嶠가 軍士操鍊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車騎步隊伍規式, 車騎步合操小節目, 車騎步大操節目, 戰車制를 함께 수록 편찬하여 언해해서 咸鏡道 咸興에서 1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해낸 兵書다.

序와跋은 없고 책의 末尾에 위의 기록이 있다. 한문 원문과 이에 대한 언해문이 짝을 지어 있는데 한문 원문의 夾註文은 언해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車騎步合操小節目’의 마지막 부분과 ‘戰車制’는 漢文原文만 있을 뿐이다. 地方版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어두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하여 ㅅ ㅈ ㅊ ㅌ 등의 합용병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부분적으로는 그 당시의 합흥 지역어를 반영하고 있다.

## 6. 東醫寶鑑

許浚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醫書를 모아 集大成하여 1613년(光海君 5년)에 內醫院에서 訓練都監의 改鑄甲寅子로 간행해 낸 25권 25책의 漢醫書다. 특히 이중 湯液篇 3권 3책은 藥物名에 대해 한글로 써 놓은 것이 있어서 국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이 湯液篇은 주로 鄉藥과 아울러 唐藥 등의 漢藥과 그 용법에 대하여 쓰고 있다. 여기에는 한글로 쓰인 鄉藥名이 약 640개가 등재되어 있다.

이 책은 異本이 매우 많다. 原刊本인 活字本은 서울대 규장각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重刊本은 “己亥仲秋內醫院校正嶺營開刊”(성균관대, 고려대에 소장, 1659년이나 1719년 간행), “歲甲戌仲冬內醫院校正嶺營開刊”(1754년 간행), “歲甲戌仲冬內醫院校正完營重刊”(1754년 간행) “亨保九甲辰年京都書林栢井藤兵衛板行”(1724년 日本에서 간행), “乾隆癸未蒲月鐫 翻刻必九”(1766년 중국에서 간행)의 간기를 가진 것 등이 있다. 湯液篇을 수정하여 별도로 간행한 책도 있다(서울대 일사문고). 1986년 太學社에서 여러 異本을 함께 영인하였다.

## 7.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년(광해군 9년)에 光海君의 명에 의하여 弘文館 副提學 李惺 등이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조선 초기 즉 15세기와 16세기에 간행되었던 『三綱行實圖』와 『續三綱行實圖』의 속편이다. 임진왜란 이후에 旌表를 받은 뚜렷한 충신 효자 열녀를 중심으로 하여 1613년에 上 中 下 삼편의 『三綱行實』을 편찬하여 바치면서 纂輯廳을 설치하고 改修하기를 청하자 위의 삼편을 토대로 하고 『輿地勝覽』 및 각 지방의 보고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이를 圖書와

諺解를 붙여 孝子圖 8권 8책, 忠臣圖 1권 1책, 烈女圖 8권 8책, 모두 17권 17책으로 그 편찬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그 간행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므로 지방 5도에 분담시켜 간행하도록 하여 전라도는 6책, 경상도는 4책, 공충도(충청도)는 4책, 황해도는 3책, 평안도는 1책을 분담하여 1617년(광해군 9년)에 목판본으로 그 간행이 완성되었다. 결국 이 책은 1615년에 편찬이 완성되어 1617년에 그 간행이 완성된 셈이다.

국어사 연구에서, 특히 근대국어 초기의 모습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 문헌은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취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헌에 나타나는 한글표기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국어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지만, 이 문헌에 나타나는 국어는 中央語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각 方言까지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에 분담시켜 간행하였기 때문에 각 권책에 따라 각 방언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 문헌에 보이는 방언형들은 각 傳을 언해한 郎廳들의 방언이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어느 지방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郎廳이 어느 傳을 언해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한 어느 부분이 어느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1959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하였고, 1978년에는 대제각에서 이를 다시 영인하였으며, 1992년에는 흥문각에서 또 영인하였다.

## 8. 女訓諺解

원래 『女訓諺解』는 1532년(中宗 27년)에 崔世珍이 『女訓』을 언해하여 校書館에서 간행한 책이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현재 전하는 『女訓諺解』는 仁祖年間, 특히 1620~1640년대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2권 2책의 목판본이다. 高麗大 晩松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이 『女訓諺解』는 1508년 명나라 武宗때 聖母章聖慈仁皇太后가 편찬 간행한 『女訓』을 1530년에 다시 간행한 중간본인 『女訓』을 언해한 것이다.

漢文의 原文을 한꺼번에 실고 그 뒤에 각 目次別로 원문의 漢字음과 國文吐를 달아 놓은 후 이를 다시 한자를 섞은 한글로 번역하여 놓았다. 동일한 내용을 한문 원문, 漢字음과 國文吐를 달아 놓은 것, 그리고 國漢文 混用의 諺解文의 세 가지로 해 놓은 체계를 사용한 것은 부녀자들을 쉽게 이해시키

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語頭子音의 표기에 ‘ㅁ, ㅂ’ 등이 보이는데 이러한 표기 경향은 『練兵指南』(1612), 『東國新續三綱行實圖』(1615), 『重刊杜詩諺解』(1632), 『火砲式諺解』(1635), 『新傳煮取焔焔方諺解』(1635) 등에 보이는 것들이어서 그 간행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1990년에 弘文閣에서 『閨閣叢書』와 합본하여 影印하였다.

### 9. 孟子諺解

宣祖의 명에 따라 四書의 하나인 『孟子』의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언해하여 14권 7책의 활자본으로 교정청에서 간행한 책으로 원간본은 1590년(선조 23년)에 간행되었다. 어 원간본은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원문인 한문을 앞에 실고 이어서 언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원문과 언해문의 한자에는 한자음이 달려 있는데, 이 한자음은 東國正韻식 한자음에 따르지 않고 현실한자음에 따라 표기된 것이다. 방점도 달려 있고 △과 ◯도 사용되고 있다.

근대국어 시기에 이 『맹자언해』는 여러 번 간행되었다. 그래서 異本이 꽤나 많이 있다. 그래서 宣祖本, 光海君本, 仁祖本, 康熙 23年本, 元宗本, 戊申字本, 丁酉字本, 純祖本 등이 있다.

우선 내사기가 있는 것은 “萬曆十八年七月日”(1590년, 선조 23), “萬曆四十年十二月日”(1612년, 光海君 4), “崇禎四年閏十一月日”(1631년, 仁祖 9), “康熙三十二年九月十四日”(1693년, 肅宗 19)(이 책에는 世在癸酉孟夏六月既望謹跋의 발문이 있다)이 있으며, 간기가 있는 것으로서는 “庚辰新刊內閣藏板”(1820년, 純祖 20), “甲申新刊嶺營藏板”(1824년, 純祖 24), “壬戌季春嶺營重刊”(?)의 간기를 가진 것이 있다. 그리고 간기는 없으나 그 활자상으로 보아 庚辰字活字本과 丁酉字活字本들이 있다. 이들은 각각 10행 19자본, 10행 17자본, 12행 23자본으로 크게 나뉜다.

근대국어 시기의 이 자료들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음운론적으로는 간행시기의 국어를 반영하였지만, 문법적으로는 16세기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도산서원본은 1974년 한양대 국학연구원에서, 그리고 1976년에 대제각에서 각각 영인하였다. 내각장판본

도 대제각에서 영인하였다.

### 10. 大學諺解

선조의 명에 따라 四書의 하나인 『大學』의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언해하여 不分卷 1책의 활자본으로 校正廳에서 간행한 책이다. 原刊本은 1590년(선조 23)에 간행된 것이다. 이 원간본은 앞의 2장이 落張인데 陶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다. 원문인 한문을 앞에 실고 이어서 언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원문과 언해문의 한자에는 漢字음이 달려 있는데, 이 한자음은 東國正韻式 한자음에 따르지 않고 現實漢字音에 따라 표기된 것이다. 傍點도 달려 있고 △와 ㅅ도 사용되고 있다.

이 대학언해는 異本이 많다. “萬曆三十九年七月日”, “崇禎四年閏十一月日”의 內賜記를 가진 것과 “歲庚午仲春開刊全州河慶龍藏板”, “庚辰新刊內閣藏板”, “戊子新刊嶺營藏板”, “壬戌季春嶺營重刊”, “辛丑五月嶺營重刊”, “丙午仲夏咸鏡監營開刊”의 간기를 가진 것들이 있다. 위로부터 각각 1611년(광해군 3), 1631년(인조 9), 1810년(순조 10), 1820년(순조 20), 1828년(순조 28), 1862년(철종 13)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고 함경감영본과 辛丑本은 아직 그 간행연도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10행 19자본, 10행 17자본, 10행 23자본으로 대별된다.

이 대학언해는 선조 때의 대표적 儒臣들 대부분이 참여해 만든 경서언해의 結晶이다. 이에 비해 율곡이 언해하여 1749년(영조 25)에 간행한 『大學栗谷諺解』는 개인이 언해한 점에서 문체상의 차이를 보인다. 전자가 순수국어를 많이 쓴데 비해 후자는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 책 역시 『孟子諺解』와 마찬가지로 근대국어를 연구자들이 인용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산서원본은 1974년 한양대 국학연구원에서, 그리고 1976년에 대제각에서 각각 영인하였다. 내각장판본도 대제각에서 영인하였다.

### 11. 論語諺解

선조의 명에 따라 四書의 하나인 『論語』의 원문에 토를 달고 언해하여 4권 4책의 활자본으로 간행한 책인데, 校正廳에서 행한 四書三經의 언해사업



으로 『대학언해』, 『중용언해』, 『맹자언해』, 『소학언해』 등과 함께 간행되었다. 대학, 중용, 맹자언해와 함께 원간본이 陶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는 편찬과 간행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같이 간행된 『소학언해』의 凡例와 跋 및 關與官員列銜, 그리고 논어언해의 “萬曆十八年七月日”의 內賜記로 보아 李山海, 鄭澈 등 당대의 대표적 儒臣들 31인이 참여해 1590년(선조 23)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인 漢文을 앞에 실고 뒤에 언해를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원문에는 한글로 된 토와 漢字음이 있고 언해문에도 한자와 한자음이 표기되어 있다. 언해문과 現實漢字音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에는 傍點이 찍혀 있다. △와 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논어언해에는 여러 異本이 전한다. “萬曆四十年九月日”, “崇禎四年閏十一月日”의 내사기가 있는 책이 있다. 각각 1612년(광해군 4), 1631년(인조 9)에 간행된 책이다. 전자는 1590년본을 따라 방점과 △, ㅎ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歲庚午仲春開刊全州河慶龍藏板”, “庚辰新刊內閣藏板”, “壬午新刊嶺營藏板”, “壬戌季春嶺營重刊”의 刊記를 가진 책들이 있다. 각각 1810년(순조 10), 1820년(순조 20), 1822년(순조 22), 1862년(철종 13)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외에 간기를 알 수 없는 異本도 많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즉 10행 17자본, 10행 19자본, 10행 23자본이다. 그러나 그 표기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도산서원본은 1974년 한양대 국학연구원에서 영인하였고, 다시 1976년 대제각에서 영인하였다. 내각장판본도 대제각에서 영인한 적이 있다.

## 12. 中庸諺解

선조의 명에 따라 四書의 하나인 『中庸』의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언해하여 1590년(선조 23)에 56장의 1책의 활자본으로 교정청에서 간행한 책이다. 원간본은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한문을 앞에 실고 이어서 언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원문과 언해문의 한자에는 현실한자음에 따라 표기된 한자음이 달려 있다. 방점도 달려 있고 △과 ㅎ도 사용되고 있다.

『중용언해』 역시 역대 왕대에 여러번 간행되어 이본이 많다. “萬曆十八年七月日”(1590년, 선조 23), “萬曆四十年十二月日”(1612년, 광해군 4), “崇禎四年閏十一月日”(1631년, 인조 9), “康熙二十三年十月十六日”(1684년, 숙종 10),

“康熙三十二年九月十四日”(1693년, 肅宗 19)의 內賜記가 있는 것이 있으며, 또한 “庚辰新刊內閣藏板”(1820년, 純祖 20), “戊子新刊嶺營藏板”(1824년, 純祖 24), “正戊季春嶺營重刊”(1862년, 철종 13), “歲庚午仲春開刊全州河慶龍藏板”(1870년), “丙午孟秋咸鏡監營開刊”의 간기를 가진 것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크게 10행 19자본, 10행 17자본으로 나뉜다.

이 문헌 역시 근대국어 연구를 위한 자료로 이용할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도산서원본은 1974년 한양대 국학연구원에서 영인하였고, 다시 1976년 대제각에서 영인하였다. 내각장판본도 대제각에서 영인한 적이 있다.

### 13. 重刊杜詩諺解

1481년(成宗 12년)에 柳允謙, 義砧 등이 唐나라 杜甫의 詩를 諺解하여 간행한 初刊本 『杜詩諺解』를, 1632년(仁祖 10년)에 吳翹이 이를 교정하여 嶺南의 列邑에서 木版本으로 分刊한 책으로 모두 25권 25책으로 되어 있다. 嶺南의 方言이 반영되어 있어서 주목을 받아 온 문헌이다. 특히 初刊本과 비교하여 국어의 변화상을 발견할 수 있어서 국어학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문헌이다. 서울대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舊 藏書閣 圖書) 등 각 도서관에 그 완질이 소장되어 있다. 1991년에 泰東에서 영인하였다.

### 14. 家禮諺解

朱子가 가정에서 日用하는 禮節을 모아 엮어서 만든 『家禮』를 申滉이 언해한 책으로서 1632년(仁祖 10년)에 10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강원도 原州에서 개간된 책이다. 家廟之圖 등의 그림과 圖式이 있는 家禮圖와, 通禮 冠禮 昏禮 喪禮 祭禮의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家族名稱 등에 대한 당시의 語彙資料도 풍부히 반영하고 있어서 語彙研究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한편 이 당시의 江原道 原州地域語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方言史 자료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漢字語는 두 音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語頭音節에서나 非語頭音節에서나 어느 음절은 漢字로 그리고 어느 音節은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 漢字語가 國語化되어 가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보이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은 주로 17세기초에 나온 문헌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서울대 규장각(零本 1책) 서울대 가람문고(10권 4책) 경북대도서관(零本 4책) 普成高(零本 2책) 연세대도서관(10권 4책) 고려대도서관(10권 4책)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1983년에 弘文閣에서 영인하였다.

### 15. 火砲式諺解

1635년(仁祖 13년)에 李曙가 각종의 총쏘는 방법과 火藥 굽는 방법을 기술하여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낸 책이다. 이 책은 현재 네 가지 異本이 전하고 있다. 原刊本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舊 安春根 所藏本)으로 『新傳煮取焔焔方諺解』와 함께 한 책으로 묶여 있다. 책의 끝에 崔鳴吉의 跋文과 刊記(崇禎八年八月日刊)가 있다. 重刊本인 두번째의 책은 1685년(肅宗 11년)에 重刊되었다는 刊記와 監校官의 이름이 더 적혀 있다(崇禎八年八月日刊 後五十年乙丑正月日重刊 監校官副司果金益榮). 이 책 역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舊 藏書閣 所藏本)인데 原刊本과 마찬가지로 『新傳煮取焔焔方諺解』와 合綴되어 있다. 세번째의 책은 1685년판의 複刻本인데 뒤에 1698년(肅宗 24년)에 金指南이 지어 간행해낸 『新傳煮焔方諺解』의 重刊本인 1796년판까지 덧붙여 合本되어 있다. 이것 역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舊 藏書閣 所藏本)이다. 版式과 版匡이 1685년판과 동일하고 『新傳煮取焔焔方諺解』와 合綴된 것으로 보아 複刻本임을 알 수 있다. 네번째의 이본은 黃海道 兵營에서 重刊해낸 1권 1책의 木版本이다.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으로 版匡도 작고 또 다른 책과 合本되어 있지도 않다. 版式도 原刊本과 전혀 다르다. 책의 끝에 黃海道 兵營에서 간행했다는 기록이(黃海兵營改刊) 보이지만 刊行年度는 알 수 없다. 1685년판과 비교하여 볼 때 翻譯上의 차이는 없지만 表記法上의 차이가 보인다. 이 黃海道 兵營版은 1685년판을 底本으로 하여 重刊해낸 것이다. 1685년판은 1635년판인 原刊本과 비교하여 볼 때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원간본이 原文인 漢文을 그 漢字음과 ㅃ를 달아 실으면서도 곳곳에 諺解에 놓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비하여 1685년판은 이를 모두 언해하고 있으며 또한 표기법도 고쳐 놓고 있는 것이다. 즉 원간본의 ‘뺨이코(1b)’를 ‘적이코’(1b)로 바꾸고 있는 등 많은 표기법상의 차이를 보인다. 같이 묶여 있

는 『新傳煮取焰焔方諺解』에도 표기법상의 차이가 있다. 책의 끝에 보이는 跋文에도 몇 글자가 重刊本에는 빠져 있다.

『新傳煮取焰焔方諺解』의 끝에 보이는 ‘得硝法始末’에 의하면 1628년~1644년에 關西 사람 成根이 煮硝新方을 中國에서 얻어 이를 李曙가 纂輯하고 崔鳴吉이 跋文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兵書 연구뿐만 아니라 17세기의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특히 異本들의 비교를 통하여 표기법의 변천 및 音韻의 변천을 연구할 수 있다.

### 16. 新傳煮取焰焔方諺解

1635年(仁祖 13年)에 李曙가 焰硝 곧 火藥의 原料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여 편찬한 책이다. 『火砲式諺解』와 合綴되어 전하고 있다. 『新傳煮硝方諺解』와 類似한 책이나 同一한 책이 아니다. 『火砲式諺解』와 마찬가지로 1685年의 重刊本이 전한다. 原刊本에는 t 口蓋音化가 보인다거나 ‘달그릇데’ ‘가대’ 등의 方言形이 보임으로 해서 이 原刊本이 地方版임을 알 수 있다. 모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이다.

### 17. 勸念要錄

1637년에 求禮 華嚴寺에서 開刊한 책으로 王郎返魂傳을 비롯한 11개의 佛敎說話가 실려 있다. 11개의 佛敎說話는 (1)王郎返魂傳 (2)遠公結社傳 (3)闕公則現報傳 (4)烏長王見佛傳 (5)鄭牧卿執幡傳 (6)房叢勸他往生傳 (7)隋文皇后傳 (8)荊王夫人立化傳 (9)梁氏自明傳 (10)童女勸母傳 (11)屠牛善和十念傳이다. 이중 王郎返魂傳은 桐華寺本, 海印寺本, 禪雲寺本, 興律寺本이 있어서 이들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海印寺版인 ‘彌陀懺略抄’에는 上記의 (1), (4), (6), (7), (10), (11)이 들어 있어서 이들의 비교도 가능하다. 이 『勸念要錄』은 全羅道方言을 반영하고 있다. t 口蓋音化가 비어두음절이나 어두음절에 걸쳐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k, h 口蓋音化는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은 서울대 一蓑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 弘文閣에서 影印한 바 있다.

### 18. 辟瘟新方

傳染病을 退治하는 방법을 기록한 醫書로 1653년(孝宗 4年)에 御醫인 安景

昌 등이 王命에 의하여 편찬 언해에서 불분권 1책으로 校書館에서 간행해낸 책이다. 이 책은 두 가지의 異本이 전해 온다. 하나는 木版本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의 소장이요, 또 하나는 改鑄甲寅字本으로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등의 소장이다. 목판본이 원간본으로 보인다. 반면 改鑄甲寅字本은 1653년판의 중간본으로 보인다. 이 改鑄甲寅字가 三鑄甲寅字인 것으로 보아서 1668년(顯宗 9년) 이후, 특히 1724년(景宗 4년, 英祖 即位年)이거나 1727년(英祖 3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목판본은 弘文閣에서 영인한 바 있다.

### 19. 語錄解

中國 宋나라의 程子 朱子 등의 諸賢들이 後學들을 訓誨하고 書翰에 사용하였던 俚語 즉 俗語를 蒐集 編纂하여 우리말과 漢字로 註解하여 놓은 책인데 版本으로서 네 가지가 現存한다. 즉 鄭澆의 語錄解, 南二星의 語錄解, 그리고 木活字本の 語錄解와 白斗鏞의 『註解語錄叢覽』 속에 있는 朱子語錄解가 그것이다. 그리고 많은 筆寫本이 現存한다.

語錄解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原刊本인 鄭澆의 語錄解와 改刊本인 南二星의 語錄解의 두가지 계열로 나뉜다. 木活字本の 語錄解와 白斗鏞의 『註解語錄叢覽』 속에 들어 있는 朱子語錄解는 南二星의 語錄解에 속하고 筆寫本들의 대부분도 南二星의 語錄解 계열에 속한다.

原刊本の 語錄解는 1657年(孝宗 8年)에 당시 慶北 庇安縣監으로 있던 鄭澆이 庇安縣內의 龍興寺에서 刊行해낸 1책의 木版本이다. 그 당시의 慶北方言을 반영하고 있어서 t 口蓋音化 등이 나타난다.

改刊本 語錄解는 鄭澆의 語錄解가 소루하게 만들어져 이 原刊本이 나온지 12年 뒤에 수정작업을 거쳐 1669年에 붙여 校書館에서 刊行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慶北方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木活字本の 語錄解는 1860年~1870年(同治年間)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活字本の 뒤에 淸나라의 吳省蘭이 纂輯한 『藝海珠塵』의 冊 21에 들어있는, 程際盛이 纂한 ‘駢字分箋’이 合綴되어 있다.

白斗鏞이 編纂하고 尹昌鉉이 增訂하여 1919年 翰南書院에서 木版本으로 刊行해낸 『註解語錄叢覽』 속에 ‘朱子語錄解’라고 하여 수록한 語錄解가 있

다. 이 책은 南二星의 語錄解에 보이는 跋文까지 들어가 있다.

原刊本과 改刊本은 1983年 韓國文化 4輯에 影印하였고 『註解語錄叢覽』은 1978年 太學社에서 影印하였다.

## 20. 新刊救荒撮要

1554年(明宗 9年)에 王命에 의하여 編纂 諺解된 『救荒撮要』에다가 1660年(顯宗 1年)에 申夙이 이 『救荒撮要』의 續篇으로 編纂 諺解하여 刊行한 『救荒補遺方』을 合綴하여 낸 1책의 木版本이다.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救荒撮要』는 1554年版, 1584年版, 1639年版, 1660年版, 1686年版的 5가지가 있지만 현존하는 것은 1584年版, 1660年版, 1686年版的 세 가지다.

1584年版的 『救荒撮要』는 ‘萬曆甲申春 海州牧開刊’의 刊記를 가진 것인데 筆寫本만이 高麗大圖書館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救荒補遺方이 合綴되어 있지 않다. 책 뒤에 李澤의 跋文이 있는데 이 跋文은 1554년에 쓰인 것이다. 1660年판과는 그 翻譯이 다르고 漢文原文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1660年版은 두 가지가 전하는데 하나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所藏本(舊 尹錫昌 教授 所藏本)이고 또 하나는 서울대 가람문고 所藏本이다. 이 두 책을 표기법상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책이 시대적으로 앞서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단지 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이 1660년에 中央에서 낸 책이고 가람문고본은 그 뒤의 重刊本이며, 이를 다시 武城에서 1686년에 坊刻本으로 重刊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또한 가람문고본이 西原縣監이었던 申夙이 西原(濟州)에서 刊行한 책의 覆刻本이고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은 이 책을 보고 王이 명령하여 中央에서 다시 刊行한 책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이나 가람문고본은 1660年~1686年 사이에 이루어진 책으로 보고 자료를 이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1660年の 두 版本과 1686年の 武城版을 1986年 太學社에서 影印하였다.

## 21. 千字文(七長寺板)

七長寺板 『千字文』은 1661년에 千字文에 釋音을 달아 開刊한 책으로 현재 京畿道 安城郡 七長寺에 『類合』과 함께 그 版木이 보존되어 있다. 목판본

I책이다. 이 천자문이 칠장사에서 개간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의 판목을 가져 온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칠장사가 세도가에게 잠시 산을 빼앗겼던 것을 1674년에 다시 중수한 절이므로 이곳에서 개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 천자문은 石峰千字文 계통의 烈字本에 속한다. 곳곳에 그 釋은 없고 音만이 달려 있는 것이 보인다. 이 七長寺版 『千字文』의 釋音에 나타나는 표기법을 보면 松廣寺板 『千字文』과 대동소이하다. 仙巖寺板 『千字文』과도 유사하나, 오히려 松廣寺板 『千字文』에 훨씬 가깝다.

## 22. 類合(七長寺板)

七長寺板 『類合』은 1664년(顯宗 5년)에 類合에 釋音을 달아 開刊한 책으로 현재 京畿道 安城郡 七長寺에 『千字文』과 함께 그 版木이 보존되어 있다. 목판본 I책이다. 천자문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개간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七長寺板 『類合』은 후대에 간행된 武橋新刊本 『類合』이나 滙東書館本 『類合』과 마찬가지로 1512자의 한자에 釋音을 달아 놓았다. 이 七長寺板 『類合』은 현재까지 알려진 『類合』 중 刊記가 분명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보인다. 곳곳에 그 釋은 없고 音만이 달려 있는 것이 보인다. 版木에서 그 釋이 달린 부분을 깎은 흔적이 보이지 않아 원래부터 釋을 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七長寺版 『類合』의 釋音에 나타나는 표기법을 보면 松廣寺板 『類合』과 대동소이하다. 仙巖寺板 『類合』과도 유사하나, 오히려 松廣寺板 『類合』에 가깝다. 그러나 戊申刊板本이나 滙東書館本, 그리고 武橋新刊本과 乎隱齋藏板本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로 보아서 類合의 釋音은 佛家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23. 老乞大諺解

1670年(顯宗 11年)에 中國語 學習書인 老乞大의 原文 漢字에 한글로 中國의 正音과 俗音을 달고 諺解하여 芸閣에서 上下 2권 2책의 鑄字本으로 刊行한 책이다. 序文이나 跋文이 없으나 通文館志 卷八 書籍條에 ‘內賜老乞大諺

解'라 하고 그 註에 '二本康熙庚戌陽坡鄭相國啓令藝閣鑄字印行'이라 되어 있어 이 책이 陽坡 鄭太和가 관계하여 諺解하여 活字本으로 刊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그 版本이 전해지는지, 전해진다면 어느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에서 奎章閣叢書 第九로 影印된 老乞大諺解(서울대 奎章閣 所藏本, 도서번호 奎 1528)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老乞大諺解가 1670년에 刊行된 문헌임은 1677년에 刊行된 朴通事諺解의 體裁 및 表記法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老乞大諺解는 16세기에 刊行된 것으로 보이는, 崔世珍이 翻譯한 『翻譯老乞大』 그리고 1745년에 平壤에서 刊行된 『重刊老乞大諺解』, 1795년이나 그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重刊老乞大諺解』와 비교 검토하여 國語史研究에 큰 도움을 준다.

이 『老乞大諺解』는, 『朴通事諺解』가 서울에서 중국에 갈 때까지의 여정에서의 대화를 기록한 것임에 비하여, 중국에서 지내면서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老乞大諺解』는 『朴通事諺解』와 함께 다른 문헌에 비해 口語的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老乞大諺解』는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에서 奎章閣叢書 第九로 影印된 적이 있고 亞細亞文化社에서도 『朴通事諺解』와 함께 影印한 적이 있다.

#### 24. 捷解新語

1618年(光海君 10年)에 康遇聖이 編纂하여 1676年(肅宗 2年)에 司譯院에서 10권 10책의 活字本으로 刊行한 日本語 學習用 教材다. 日本文字를 大字로 쓰고 그 오른쪽에 한글로 發音을 적어 놓았는데 각 句節로 나뉜 일본문자의 大字 아래에 雙行으로 우리말 풀이를 한글로 적고 있다. 우리말 풀이에는 漢字도 쓰고 있다. 대부분이 對話體로 이루어져 있다.

이 『捷解新語』는 異本이 여럿 전한다. 뿐만 아니라 이 『捷解新語』를 改修한 『改修捷解新語』도 그 異本이 여럿 전한다. 왜냐하면 이 『捷解新語』는 二次에 걸쳐 改修가 이루어졌고 또 이 改修本을 다시 重刊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第一次 改修本은 通信使行에 隨行한 崔壽仁과 崔鶴齡이 『捷解新語』의 厘



改를 맡아서 이를 완수하였고, 이를 寫字官에게 繕寫한 후 이 두 사람이 다시 校正하여 1748年(英祖 24年)에 校書館에서 活字로 印行한 책이다. 종래 戊辰本이라 불리던 것인데 현재 불란서 파리 동양어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이 최근에 安田章 教授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고 日本의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에서 影印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第二次 改修는 崔鶴齡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重刊捷解新語』의 卷頭に 있는 李湛의 序文에는 第一次 改修本이 芸閣에서 刊行된 후에 이를 다시 崔鶴齡이 倭諺大字까지도 당시 日本의 大坂과 江戸에서 사용하고 있던 文字를 攷證하고 修正하여 私力으로 活字로 刊行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第二次 改修本은 活字本으로 印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第二次改修의 活字本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異本은 이 第二次 改修本을 底本으로 한 重刊本이다. 이 第二次改修本の 重刊은 金栢谷이 10年에 걸쳐 崔鶴齡의 第二次 改修本을 다시 修正하고 金亨寓가 이 活字本을 正祖 5年(1781年)에 覆刻하여 木版으로 刊行한 책이다. 이 第二次改修本の 重刊本은 서울대 奎章閣, 日本 對馬藩 宗家文庫, 日本의 東洋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日本의 東洋文庫 所藏本은 1964年에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에서 影印하여 소개된 바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改修捷解新語에는 다음과 같은 異本들이 존재한다.

1. 崔壽仁 崔鶴齡의 第一次 改修本으로 1748年에 校書館에서 活字本으로 간행한 책으로 현재 불란서 파리 동양어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2. 第二次 改修本으로 崔鶴齡이 改修하여 活字本으로 간행한 책인데,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3. 辛丑重刊本으로 第二次 改修本을 수정하여 重刊한 책이다. 木版本으로 1781年에 간행된 책인데, 현재 서울대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辛丑 重刊本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京都大學에서 影印한 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규장각 소장본은 그 日本音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東洋文庫 소장본은 그 日本音에 圈點을 달아 놓은 곳이 눈에 띄인다. 원래 刊行할 때에 圈點이 쳐져 있던 것인지, 아니면 後代에 붓으로 그려 넣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책의 原刊本은 1934年 古典保存會에서 原本 크기로 複寫 刊行한 일이 있고, 1957年 日本京都大學에서 解題와 日本語 索引을 붙여 影印한 일이 있다. 그리고 1973年 亞細亞文化社에서 影印하였다. 1748年の 重刊本은 日本의 京都大學에서, 그리고 太學社에서 影印하였다.

## 25. 馬經抄集諺解

馬經은 仁祖(1623~1649)때 李曙가 馬病의 고치기 어려움을 열려하여 중국에서 전해온 『新編集成馬醫方』과 馬師文의 『馬經大典』 등에서 말의 疾病에 대한 중요한 것을 뽑아 4권으로 편집한 獸醫學書이다. 이것을 다시 要義를 따서 原文 漢字에 注音과 點를 달고 한글로 諺解하여 2권 2책으로 만든 것이 『馬經抄集諺解』이다.

이 책에는 편자의 이름이나, 간행연도를 알 수 있는 序文이나 跋文은 없고 目錄과 本文만이 들어 있다. 그러나 張維가 쓴 『谿谷集』 권7에 들어 있는 ‘馬經諺解序’에 의해 李曙가 편찬하였다는 것과 李曙의 생존연대로 보아 인조대에 이루어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馬經抄集諺解』는 上下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각 권의 앞에 목록이 있으며 본문이 있는데 먼저 원문에 注音과 토를 단 부분이 大字로 되어 있고 한 행에 두 자씩 小字로 諺解文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장마다 나누어 원문 밑에 諺解文이 쓰이어 있어 다른 諺解本이 적당한 단락을 나누어 원문을 계속 쓰고 諺解文을 계속 쓴 것과 다르다.

『馬經抄集諺解』에는 여러 개의 異本이 있다. 규장각 소장본과 장서각 소장본이 그것이다. 규장각 소장본(도서번호 규 720)은 古活字本(顯宗實錄字)이며 책의 크기라든가 四周邊, 版心魚尾는 장서각 소장본(도서번호 3-333)과 유사하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도서번호 3-333과 3-334 두 개가 있는데 모두 목판본이며 책명은 ‘마경초집언해’이다.

李仁榮氏 藏本에는 “康熙二十一年 十月十六日”(1682년)의 內湯記가 있는 책이 있고, 이것이 목판본이므로 아마도 古活字本이 原刊本이고, 木版本이 1692년에 간행된 重刊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필사본으로는 일사문고(일사 고 636.089-Y63m-v.1-2)와 가람문고(가람 고 636.089-Y63m v.1-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각각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

3-334본, 즉 목판본은 弘文閣에서 영인한 바 있다.

## 26.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閱相國이 司譯院 中國語 譯官인 愼以行, 金敬俊, 金指南 등에게 명하여 편찬케 하고 中國人 文可尙, 鄭先甲 등의 수정을 받아 1690년에 사역원의 鄭昌周, 尹之興, 趙得賢으로 하여금 2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케 한 중국어 어휘사전이다. 각 어휘를 문항별로 배열하고 그 중국어 발음과 뜻을 한글로 적은 類別辭書이다. 그 補篇은 1775년에 편찬되어 『譯語類解補』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通文館志에 그 편찬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上下 二段으로 나누어 漢字로 中國語의 標題語를 쓰고 매자 아래의 좌우 양쪽에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는데, 왼쪽은 韻書의 規定音을, 오른쪽에는 그의 校正音을 표기하였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말의 뜻을 적었다.

현존하는 異本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모두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데, 규장각본보다 古圖書本이 그 초간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구개음화 등의 표기 등이 다른 본들보다 가장 적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본이 언제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필사본도 전한다. 1974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규장각본을 영인하였는데, 이 영인본의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 영인본의 上卷과 下卷은 다른 板本이기 때문이다. 上卷이 초간본에 가깝고 下卷은 중간본인 것으로 보인다.

## 27. 書傳諺解

三經의 하나인 『書經』에 대한 언해서로서 한문 원문에 한글로 토를 달고 다시 우리말로 언해한 책으로 『書經諺解』라고도 한다. 5권 5책의 戊申字 활자본이다. 선조때 校正廳에서 언해한 原稿本을 임진란 이후에 다시 손질하여 비로소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初刊本이나 초간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목각본은 보이지 않는다. 선조때나 광해군 때에 간행된 다른 경서언해들은 표기법상의 특징인 △이나 ㅁ이 漢字音의 표기에서나마 나타나지만 현재 전하는 『書傳諺解』 중에는 그러한 예를 보이는 판본이 하나도 없다. 다른 경서언해들은 內賜記를 가진 판본들이 현존하지

만 이 『書傳諺解』란 內賜記를 가진 것이 없다. 현재 진하는 판본 중에 1695년(숙종 21)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戊申字 活字本이 最古本으로 보인다. 그리고 간행연대를 알 수 없는 改鑄甲寅字本이 있다. 목판본으로는 “歲庚午仲春開刊全州河慶龍藏板”, “庚辰新刊內閣藏板”, “丙戌新刊嶺營藏板”, “壬戌季春嶺營重刊”의 刊記를 가진 것들이 있다. 각각 1810년(순조 10), 1820년(순조 20), 1826년(순조 26), 1862년(철종 13)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위의 모든 책들은 표기법상으로도 그리 큰 차이가 없다. 현재로서는 초간본이 전하지 않아서, 무선자 활자본을 이용하여 초간본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무선자 활자본은 서울대 일사문고에 零本으로, 誠庵文庫에 그 전질이 전한다. 내각장판을 다른 경서언해와 함께 大提閣에서 영인한 적이 있다.

## 28. 新傳煮硝方諺解

焰硝 곧 火藥의 原料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책으로서 1698年(肅宗 24年)에 譯官인 金指南이 編纂한 것이다. 1698년에 初刊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그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1796년(正祖 20년)의 중간본만이 전하고 있다. 『新傳煮取焰硝方諺解』와 類似한 책이나 同一한 책이 아니다. 『火砲式諺解』, 『新傳煮取焰硝方諺解』와 합철되어 있기도 하다. 중간본이 18세기말의 표기법을 보여 주고 있어서, 초간본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 29. 類合(仙巖寺版)

全南 順天의 仙巖寺에서 開刊해 낸 類合으로 현재 그 版木이 그곳에 보존되어 있다. 仙巖寺에서 간행해 냈다는 기록과 刻手名만 나와 있을 뿐 刊記가 없다. 판목 중 6, 26, 27, 28, 29, 30, 31장이 없다. 이 仙巖寺版은 松廣寺版 類合과 版匡이 동일하고 체재도 동일하다. 그 幅과 釋이 다른 곳이 많다. 언뜻 보아서 이 仙巖寺版은 松廣寺版의 復刻本처럼 보이나 순전한 복사본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수정하고 부분적으로는 복각을 한, 일종의 校正本으로 보이나, 그것도 틀린 곳이 많다. 이 두 가지 類合은 全南方言을 반영하고 있다. ㅅ 口蓋音化 등이 보인다. 그리고 語彙上에서도 全南方言이 반

영되어 있다.

### 30. 念佛普勸文

『念佛普勸文』은 1704년(肅宗 30년)에 慶北 醴泉 龍門寺에서 淸虛의 後裔인 中 明衍이 諸經의 說을 略抄하여 念佛을 권하는 글을 엮어 이를 언해하여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해낸 책이다. 原名은 『大彌陀懺略抄要覽普勸念佛文』이지만 일반적으로 『念佛普勸文』이라 칭한다.

이 『念佛普勸文』에는 수종의 異本이 전한다. 대표적인 이본으로는 1765년(英祖 41년)에 九月山 興律寺에서 간행된 것, 1776년(英祖 52년)에 陝川 海印寺에서 간행된 것, 그리고 1787년(正祖 11년)에 茂長 禪雲寺에서 간행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念佛普勸文』은 18세기의 국어연구, 특히 東南方言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뿐 아니라 國文學 研究와 佛敎의 연구에도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1986년에 太學社에서 興律寺本, 海印寺本(一蓑文庫本), 海印寺本(慶北大本), 禪雲寺本과 新編普勸文을 合本하여 影印하였다.

### 31. 喪禮諺解

金長生이 지은 『喪禮備要』 중에서 初終之禮를 가려 뽑아 1623년에 언해한 책이다. 언해자는 李文叟인데, 김장생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필사본인데, 2권 1책으로 되어 있는 원고본으로 보인다. 앞에 김장생이 쓴 ‘喪禮諺解序’가 있는데, 이것은 김장생이 같은 동네에 사는 李文叟가 언해한 것을 보고 쓴 序文이다. 필자의 소장본인데, 이 책은 1716년에 김장생의 후손이 베껴 쓴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18세기의 국어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

### 32. 火藥合劑式

1717년(숙종 43년)에 火藥 만드는 방법을 기술하여 咸鏡道에 있던 兵營인 南兵營에서 간행해 낸 책이다. 1책 15장의 목판본이다. 저자 및 언해자는 미상이다. “康熙五十六年八月日南兵營白等開刊”이란 刊記가 있다. 내용은

‘火藥合劑式’과 ‘大砲試方式’으로 되어 있다. 한문에 한글로 구결을 달아 놓은 원문의 뒤에 언해문이 쓰여 있는데, 각 한자의 아래에는 그 한자음이 달려 있다. 이 책은 보성고등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현배 교수의 『한글갈』에 간단한 소개와 그 書影이 있어서 그 편린만을 알 수 있다. 그 서영으로 보아서, 이 책의 부분인 화약합제식은 『화포식언해』의 제약식의 내용과 그 언해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언해양식도 유사하다.

### 33. 伍倫全備諺解

明나라의 丘濬이 春秋時代 吳나라의 충신 伍子胥의 자손인 伍倫全, 伍倫備 형제의 忠臣孝親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만든 희곡집 『伍倫全備記』를 한글로 언해하여 1721년에 사역원에서 8권 4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중국어 학습서이다. 이 책의 원제목은 『伍倫全備註釋諺解』인 것으로 보인다. 맨 앞에 高時彥이 쓴 序가 ‘伍倫全備註釋諺解序’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1부터 언해부분부터는 ‘伍倫全備諺解’라 되어 있다. 그러나 通文館志에도 ‘伍倫全備諺解’라 되어 있어서 ‘伍倫全備諺解’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凡例에 의하면 이 책의 간행에는 무려 21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걸렸다. 책의 앞에 高時彥이 그 편찬경위를 쓴 ‘伍倫全備註釋諺解序’가 있고, 이어서 ‘凡例 十二條’가 나온다. 이 범례에는 翻譯의 目的, 註釋의 필요성과 방법, 중국어의 음운체계, 한자음 표기법, 원문의 부분적인 수정, 난해한 부분의 해석, 등장인물의 命名法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다. 이어서 引用書目이 있고, 뒤이어 본문이 권1부터 나온다. 본문은 한자마다 왼쪽과 오른쪽에 그 한자음을 표기하여 놓았는데, 오른쪽은 그 讀音을, 왼쪽은 淸濁七音을 나타내고 있다. 독음은 現實 俗音을, 淸濁七音은 규범적인 음을 말한다. 여기서 正音은 四聲通解의 原音을, 俗音은 四聲通解의 變音을 나타낸 것이다.

이 책의 현존본은 모두 세 질로서 모두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두 질은 규장각도서예, 또 한 질은 고도서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중 고도서본은 권2부터 한자음에 간헐적으로 朱點이 찍혀 있다. 규장각본과 고도

서본은 언뜻 보기에 동일한 판본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 보면 다른 이본임을 알 수 있다. 즉 언해문에는 차이가 전혀 없지만, 한자음 표기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규장각본 중에서 어느 것이 원간본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주점이 찍혀 있는 것이 혹시 교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도서본이 원간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규장각본도 하나(규 1456)는 5책으로 묶여 있는가 하면, 하나(규 1457)는 4책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고도서본이 4책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8권 4책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본(규 1456)은 권1과 권8이 따로따로 분책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책의 분량으로 보아 마땅치 않은 분책방법이다. 1982년에 亞細亞文化社에서 영인하였다.

#### 34. 千字文(松廣寺版)

1730年(英祖 6年)에 全南 順天의 松廣寺에서 1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해낸 千字文이다. 『石峰千字文』과 동일한 계열의 것이다.

이 千字文은 책의 末尾에 “雍正八年九月日順天曹溪山松廣寺開刊 老刻卓梅見學願心後日傳布”란 기록이 있어서 1730년에 開刊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松廣寺에 그 版木이 보존되어 있다.

이 『千字文』은 부분적으로 全羅南道 方言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1994년에 태학사에서 영인하였다.

#### 35. 御製女四書諺解

1736年(英祖 12年)에 後漢 趙大家의 女誡, 唐 宋若昭의 女論語, 明 仁孝文 皇后의 內訓, 明王節婦의 女範을 엮은 女四書를 英祖의 命으로 李德壽 등이 諺解하여 4권 3책의 改鑄甲寅字로 刊行한 女子들의 修身教科書다. 卷1이 女誡, 卷2가 女論語, 卷3이 內訓, 卷4가 女範인데 卷1, 2가 한 책으로 묶여 있다. 漢文 本文을 먼저 실고 그 뒤에 諺解를 붙였는데, 本文과 諺解文에 나오는 漢字에는 그 당시의 漢字음이 한글로 적혀 있다. 서울대 규장각, 서울대 고도서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서울대 고도서본은 “乾隆二年三月十九日”의 內賜記가 있는 校正本이다. 한글표기에는 校正하지 않고 漢字音 表記에만 校正을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 『女四書諺解』에는 重刊本이 있다. 1907년 朴晚煥이 諺解하여 4권 2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한 것인데 그 순서가 初刊本과는 달리, 女誠, 內訓, 女論語, 女範의 순서로 실려 있다. 이 重刊本은 그 諺解가 初刊本과는 전혀 다르다. 漢字音은 전혀 없고 漢文 原文을 실고 그 뒤에 諺解를 붙였는데 이 諺解는 初刊本에 비해 意譯體인 점이 크게 다르다. 宋秉珣의 女四書序가 실려 있다.

初刊本은 各卷에 따라 諺解者가 달랐던 듯하다. t 口蓋音化의 實例를 보면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즉 t 口蓋音化가 四卷의 本文에는 간혹 나타나는데 비하여 序文에는 集中的으로 나타난다. 序文도 神宗御製女誠序, 御製女四書序, 女誠原序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御製女四書序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36. 御製常訓諺解

1745년(英祖 21년)에 英祖가 世子와 後王들을 위해 지은 敎訓書인 『御製常訓』을 諺解하여 1책의 改鑄甲寅字의 活字本으로 간행한 책이다. 敬天, 法祖, 惇親, 愛民, 祛黨, 崇儉, 勵精, 勤學의 8條目에 대하여 쓴 것인데, 英祖가 肅宗의 昇遐 26주년을 당하여 肅宗의 聖德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養正閣에 앉아 獻官으로 하여금 말을 받아 쓰게 하여 간행한 것이다. 漢文 本文을 실고 그 뒤에 諺解文을 붙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漢文 原文의 각 漢字 아래에 漢字音을 달고 또 한글로 註를 달아 놓았다. 1981년에 鴻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37. 御製自省篇諺解

『御製自省篇諺解』는 英祖가 經傳에서 聖君들의 政治理念 중 自修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歷代 諸史에 수록된 帝王들의 善政 德行 중 爲治의 모범이 될 내용을 抄錄하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 닦고, 政治하는데 모범을 삼고 또한 王世子에게 教훈을 주기 위해 쓴 한문본 『御製自省篇』을 諺解한 책이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舊 藏書閣) 소장의 『御製自省篇諺解』는 異本이 없는 唯一本으로 內外篇의 2권 2책인 筆寫本이다.



어제즈성편슈서(御製自省篇首序)의 말미에 「제지유조접제격등춘십칠일제」(歲在柔兆攝提格仲春十七日題)라 되어 있고, 어제즈성편후탈(御製自省篇後跋)의 끝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있어서, 한문본이 1746년(英祖 22년)에 쓰인 것이므로 한문본이 나온 직후에 언해된 것으로 생각된다.

### 38. 同文類解

玄文恒이 『淸文鑑』 『大清全書』 『同文廣彙』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漢語 語彙를 풀이하고 淸語發音을 한글로 써 놓아 1748년 芸閣에서 上下 2卷 2冊으로 간행한 책이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으로서 총 55개 부문에 4,803개의 표제어가 실려 있다. 上下 二段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한자로 된 한어 어휘를 싣고 그 아래에 국어를 그리고 그 아래에 청어를 한글로 표기하여 실었다. 뒤에 안명열의 跋文이 있다. 이 발문에 이 책의 편찬경위가 실려 있다. 1956년에 연세대 동방학연구소에서 영인하였다.

### 39. 註解千字文

1752년에 南漢 開元寺에서 洪聖源의 글씨를 板下로 하여 간행된 千字文이다. 註解者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重刊本은 서울 廣通坊에서 洪泰運의 글씨를 판하로 하여 1804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들은 한자 1자에 複數의 釋音을 달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리고 石峰千字文의 778째 한자인 ‘鵬’이 ‘鯢’으로, 915째의 ‘遼’가 ‘僚’로 바뀌어 있다. 이 이외에 『註解千字文』이란 이름의 천자문은 1916년에 全州 多佳書鋪에서 간행한 것과, 간행연도 미상의 大邱 在田堂書鋪에서 간행한 것도 있다. 이 책의 1804년판은 1972년 檀國大東洋學研究所에서 影印하였다.

### 40. 地藏經諺解

『地藏菩薩本願經』을 언해하여 上中下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불경 언해서이다. 원명은 ‘地藏菩薩本願經諺解’다. 원래 세조 때 學祖大師가 언해하여 간행하였다 하나 전하지 않는다. 또한 이의 복간본으로 추정되는 책이 충청도 은진군 불명산 雙溪寺에서 간행하여 전한다고 하나 그 소장처를 알 수 없다. 널리 알려진 책은 1762년(영조 38)에 觀松長老가 언해하여

文川頭流山 見性菴에서 간행한 것과 1765년(영조 41)에 藥師殿에서 간행한 것, 그리고 1791년(정조 15)에 순천 松廣寺에서 간행한 것과 1879년(고종 16)에 경기도 양주 천마산 寶晶寺에서 개간한 것 등이 있다. 견성암판과 약사전판은 한문으로 된 서문 이외에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다. 이 책의 표기법은 이 책이 간행되던 당시의 것이지만 문장의 구조는 15세기의 것 그대로다.

견성암판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약사전판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구 장서각소장본) 서울대 가람문고 일사문고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약사전판은 판식, 내용, 표기 등이 견성암판과 동일하나 각 句節마다 句讀點이 찍혀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 구두점은 한문의 구두점과는 달라 구두점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이 구두점은 후대의 띄어쓰기와 깊은 연관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송광사판은 언해본이 아니라 音譯本이다. 각 漢字의 왼쪽에 한자음을 달아 놓은 것이다. 보정사판은 그 서문에 “광서오년기묘지월일습각산인환운근서”(光緒五年己卯之月日 三角山人幻雲謹書)라 되어 있다. 송광사판과 보정사판은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지장경언해』는 20세기 이후에 많이 간행되었다. 『지장경언해』 이외에 한문본 지장보살본원경에다가 한자로 구결을 달아 놓은 것도 있다.

이 『지장경언해』는 18세기의 국어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나 주로 음운론의 면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법론 연구의 자료로 이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약사전판을 홍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41. 闡義昭鑑諺解

1755년(英祖 31년)에 英祖의 命으로 闡義昭鑑纂修廳을 설치하여, 亂賊을 징계하고 倫綱을 바로잡아 王世子를 세우는 義를 천명하기 위하여 金在魯, 李天輔 南有容 등이 纂進한 『闡義昭鑑』을 언해하여 1756년(英祖 32년)에 간행한 책이다. 모두 4권 4책인 木版本으로 간행되었다.

규장각도서에는 이 『闡義昭鑑諺解』의 異本이 4종류가 보인다. 도서번호 奎 2214의 筆寫本(4권 4책), 도서번호 奎 1118의 木版本(4권 4책), 도서번호 奎 5437의 「丙子閏九月日黃海監營開刊」의 간기가 보이는 木版本(4권 4책),

그리고 도서번호 奎 3233인, 제 4 권만 남아 零本으로 전하는 木版本, 이렇게 4종이다.

이들은 다시 크게 2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筆寫本과 木版本의 두 가지인데 필사본은 목판본과는 전혀 다른 번역이고, 목판본은 책의 배열순서만 다를 뿐 번역이나 그 표기법이 완전히 동일하다.

필사본은 목판본에 비해 그 번역이 直譯體로서, 한문본을 따라 초기에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필사본에 正祖가 王世子로 있을 때부터 사용하던 '弘齋'라는 印章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漢文本을 완성한 후 1755년 12월 5일에 進上한 언해본의 正書本이 아닌가 여겨진다. 大王大妃를 비롯한 宮內的 여인들에게 『蘭義昭鑑』의 내용을 읽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언해된 이 책이 진상되었던 것이 왕세자였던 正祖에게 물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목판본과 필사본 모두를 1982년에 흥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42. 綸音諺解

綸音이란 왕이 백성이나 관리들에게 내린 일종의 詔勅으로서 綸緯 또는 綸旨라고도 한다. 綸音은 대개 국가의 非常時期를 당하여 民心을 수습하기 위해 명을 내린 것이 대부분이어서, 각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민정을 위로하거나 세금 및 貢物을 減해 주거나 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간혹 王家에 慶事가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下賜品을 내리거나 공물 및 세금을 蕩減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며 19세기에는 天主教를 막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윤음은 그것을 널리 보급시켜서 그 뜻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문으로 쓰여진 것을 언해하는 일이 많았다. 이 언해된 것을 綸音諺解라고 부른다.

원래 윤음은 肅宗朝에도 보이기 시작하나 대부분이 英祖, 正祖 때의 것이거나 그 이후의 것으로서 隆熙 元年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융희 원년에 나온 윤음들은 필사본으로 남아 있으나(서울대 규장각본) 나머지 것들은 대개 印刊되었다.

이들 윤음들은 대개 중앙에서 간행한 듯이 보이나 개중에는 지방에서 간행한 것도 보인다. 지방판은 대부분이 複刻本이다.

다음에 언해된 윤음의 목록을 들어 보도록 한다.

- |                              |      |
|------------------------------|------|
| (1) 御製戒酒綸音                   | 1757 |
| (2)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 1781 |
| (3) 御製諭中外大小臣庶綸音              | 1782 |
| (4) 御製諭海西綸音                  | 1782 |
| (5) 御製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 1782 |
| (6) 御製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             | 1782 |
| (7) 御製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 1783 |
| (8) 御製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         | 1783 |
| (9)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 1783 |
| (10) 字體典則                    | 1783 |
| (11) 御製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 1783 |
| (12) 御製諭湖南民人等綸音              | 1783 |
| (13) 御製諭京畿民人綸音               | 1783 |
| (14)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士民綸音          | 1783 |
| (15) 曉諭綸音                    | 1784 |
| (16)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              | 1784 |
| (17)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         | 1788 |
| (18) 加髻申禁事目                  | 1788 |
| (19)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           | 1792 |
| (20) 御製諭濟州邑父老民人書             | 1793 |
| (21) 御製諭諸道道臣綸音               | 1794 |
| (22) 湖南六邑民人綸音                | 1794 |
| (23)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 1839 |
| (24)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       | 1881 |
| (25)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 1882 |
| (26) 御製諭王世子冊禮後各道臣軍布折半蕩減綸音    | 1784 |
| (27)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利劉儀式鄉約條禮綸音 | 1795 |

이 책은 1980년에 全北大學校 國語國文學科에서 영인하였다.

#### 43. 種德新編諺解

『種德新編諺解』는 金堉이 小學을 읽고 德을 함양시키기 위해 그 요령을 古書에서 뽑아 編著한 『種德新編』을 한글로 번역하여 上 中 下의 3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刊記가 없어 간행연도는 알 수 없으나 한문본 『種德新編』이 간행된 연도가 1758년(英祖 34년)이므로 그 이후, 특히 직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한 英祖年間으로 추정된다.

이 책 언해의 底本인 漢文本 『種德新編』은 1644년(仁祖 22년)에 쓰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種德新編』은 德行의 모범이 될만한 옛사람의 아름다운 行實이나 逸話を 모아 놓은 책이다. ‘種德新編’의 ‘種德’은 英祖의 御製序에도 보이는 바와 같이 ‘德을 심는다’는 뜻이다. 이 『種德新編』을 한글로 번역한 『種德新編諺解』는 原文(漢文)은 없고 언해가 한글만으로 적혀 있다.

이 『種德新編諺解』는 서울대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舊藏書閣), 한양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동일판이다. 이 책은 重刊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1982년에 弘文閣에서 한문 원문과 함께 같이 영인하였다.

#### 44. 御製警世問答諺解

1761년(英祖 37년)에 英祖가 70세를 1년 앞두고 自省의 의미로 세상을 教化시키기 위해 自述하여 간행한 漢文本 『御製警世問答』을 1761년이나 그 직후에 언해한 것으로 보이는 1책의 筆寫本이다.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는 이 책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舊藏書閣 所藏本)으로 唯一本으로 보인다. 筆寫記나 序跋이 없으나 한문본 『御製警世問答』이 1761년에 간행된 점으로 보아 한문본이 간행된 그 해나, 또는 그 직후에 언해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條目을 붙이지 않고 問答式의 체재로 되어 있어서 책의 제목도 ‘御製警世問答’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中庸과 大學을 토대로 하여 修身齊家 治國의 道를 서술하고 다른 經史도 인용하면서 英祖 자신의 生活觀 내지 統治觀을 기술하고 있다. 뒤에 이루어진 『御製警世問答續錄諺解』와 연관되는 것이다.

漢文本 ‘御製警世問答’이 있으므로 이 책명은 ‘御製警世問答諺解’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 45. 御製警民音

『御製警民音』은 1762년(英祖 38년)에 英祖가 이전에, 즉 1757년(英祖 33년)에 내린 ‘御製戒酒綸音’에도 불구하고 禁酒法이 잘 시행되지 않자 부모의 마음에 英祖의 마음을 비유해 가며 백성들로 하여금 禁酒法을 잘 지켜 주도록 간곡하게 당부하기 위해서 직접 口述한 것을 校書館에서 1책(10장)의 改鑄甲寅字로 간행해 낸 책이다.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는 책이다. 서울대 일사문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舊藏書閣本) 등에 소장되어 있다.

#### 46. 御製警世問答續錄諺解

『御製警世問答續錄諺解』는 英祖가 자신의 늙고 병들었음을 한탄하면서 父母兄弟에 대한 追慕와 자신의 懷古談을 問答式으로 엮어 1763년(英祖 39년)에 간행한 漢文本 『御製警世問答續錄』을 언해한 책이다. 1책으로 되어 있는 筆寫本의 原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舊藏書閣所藏)의 唯一本이다. 그 裝幀이 호화스러움으로 보아서, 한문본이 간행된 해, 또는 그 직후에 宮中에서 언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庸學을 중심으로 修身 齊家 治國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御製警世問答諺解』와는 그 내용이 매우 대조적이다.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 47. 御製祖訓諺解

『御製祖訓諺解』는 英祖가 世孫인 正祖에게 준 10가지 條目的 訓辭를 간행한 『御製祖訓』을 언해한 1책 28장의 필사본이다. 한문본 『御製祖訓』이 1764년(英祖 40년)에 改鑄甲寅字로 간행된 것으로 보아 이 諺解本도 1764년 또는 그 직후에 언해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舊藏書閣所藏)의 原本인 이 책은 한문 원문은 없고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 48. 朴通事新釋諺解

『朴通事新釋諺解』는 金昌祚 등이 본래의 『朴通事』를 대폭 수정하여 『朴通事新釋』을 만들고 이를 언해하여 1765년(英祖 41년)에 3권 3책의 목판본으로

平壤에서 간행하여 낸 책이다.

이 책에는 序文이나 跋文 그리고 刊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通文館志』 『朴通事新釋諺解』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新釋朴通事諺解』에 대한 기록이 보임으로 해서 이 책의 著者と 刊年을 알 수 있다. 즉 金昌祚 등이 수정하여 1765년에 『新釋朴通事』 곧 『朴通事新釋』과, 『新釋朴通事諺解』 곧 『朴通事新釋諺解』를 箕營(平壤)에서 간행하였다는 것이다. 『新釋朴通事』 『新釋朴通事諺解』는 각각 『朴通事新釋』과 『朴通事新釋諺解』인 것이다. 이것은 『通文館志』에 『老乞大新釋』을 『新釋老乞大』라 한 것과 同軌의 일이다.

『朴通事新釋諺解』에 보이는 언해문은 『翻譯朴通事』나 『朴通事諺解』에 비해 비교적 直譯體이다. 그래서 언해문에 쓰인 한자가 많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翻譯朴通事』보다 『朴通事諺解』가 더 심하고 이보다 『朴通事新釋諺解』가 더 심하다. 이 『朴通事新釋』의 언해는 『朴通事諺解』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朴通事新釋諺解』는 서울대 일사문고, 舊藏書閣(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2년에 홍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49. 十九史略諺解

『十九史略諺解』는 曾先之의 『十八史略』에 俞進이 元史를 보태고 通考하여 만든 『十九史略通考』의 初卷(제 1 권)을 언해한 책이다. 통칭 ‘史略諺解’라고도 한다. 卷1과 卷2의 2권으로 되어 있으나 版本에 따라 1책~3책으로 分卷 또는 合卷되어 있다.

『十九史略諺解』에는 여러 가지 異本이 있다.

(1) 「歲在壬辰嶺營新刊」의 刊記가 붙은, 1772년(英祖 48년)에 나온 木版本으로 서울대 가람문고(도서번호 가람 古-992-Sa77- v.1-2),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도서관, 영남대학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刊年을 알 수 없는, 1772년판을 다시 낸 重刊本으로 서울대규장각(도서번호 1600) 등에 소장되어 있다.

(3) 嘉慶甲子(1804년, 純祖 4년) 開板이 故 一石 李熙昇 선생님의 所藏으로 알려져 있다.

(4) 英祖時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목판본이 서울대 가람문고(도서번호

일사古-952.01-Sill)에 소장되어 있다.

(5) 英祖時 간행본의 중간본으로 보이는 「歲在屠維大荒落暮春花谷新刊」의 간기가 있는 己巳年版(1869년판?)이 서울대 일사문고(도서번호 일사古-952.01-Sill) 등에 소장되어 있다.

결국 初刊은 1772년에 大邱監營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초간본을 흥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50. 明義錄諺解·續明義錄諺解

『明義錄諺解』는 金致仁 등이 正祖의 명을 받아 1777년(正祖 1년)에 纂輯한 漢文本 『明義錄』을 같은 해에 언해 간행한 책이다.

『明義錄諺解』는 王世孫(正祖)의 代理聽政을 탄대한 洪麟漢 鄭厚謙 등의 逆謀事件을 중심으로 하여 그 始末을 공포함으로써 忠道를 밝히고자 편찬 간행되었다.

卷首 上 下와 卷一 卷二의 3권 3책으로 되어있는 이 책은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그 全秩이, 그리고 서울대학교 一般古圖書에 卷首 上 下와 卷二가, 역시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에 卷首上이, 그리고 國立中央圖書館에 卷一과 卷二가 소장되어 있다.

卷首 上 下가 빠져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藝閣에서 古活字本(丁酉 한글 木活字本)으로 간행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소장본과는 달리 四周單邊이다.

이 세 가지 중 서울대 고도서본과 가람문고본은 같은 판본으로 紙質만 다를 뿐 모두 같다. 가람문고본이 初刷本인 것 같고 古圖書本이 後刷本인 느낌이 든다. 國立中央圖書館本이 原刊本이고, 서울대 소장본이 이의 복각본이다.

이 『明義錄諺解』는 이미 1971년 경북대학교의 ‘語文論叢’ 6호에 卷首上의 일부(6장에서 50장까지)가 李基白 教授에 의해 解題와 함께 영인 소개된 적이 있고, 1981년에 弘文閣에서 국립중앙도서관본의 卷一, 卷二를 上 中으로, 그리고 『續明義錄諺解』를 下로 하여 鄭光 教授의 해제를 붙여 영인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明義錄諺解』의 전부가 소개된 적은 없다. 弘文閣에서 1984년에 영인한 것은 卷首 上 下와 서울대학교 고도서 소장본인 목판본인



卷二를 底本으로 한 것이다. 卷首上의 목활자본 完本과 卷首下의 목활자본이 발견되어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

위의 『明義錄諺解』의 續編이 『續明義錄諺解』이다. 『續明義錄諺解』는 洪相範이 父兄 洪述海 등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일으켰던 逆謀事件을 기록한 『續明義錄』을 언해한 것으로 卷一, 卷二의 2권 1책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과 가람문고,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明義錄諺解』와 『續明義錄諺解』를 홍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51. 方言類釋

『方言類釋』은 韓語 漢語 淸語 蒙語 倭語의 對譯語彙集으로서 洪命福 등이 1778년(正祖 2년)에 편찬한 4권 2책의 筆寫本이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方言集釋』 또는 『方言輯釋』으로 알려져 있지만 原冊名은 『方言類釋』이다. 이 책은 漢字로 된 中國語 단어를 표제어로 삼아 그 아래에 이 단어에 대한 韓國語를 國文으로 對譯하여 놓고 그 아래에 다시 漢語 淸語 蒙語 倭語의 순으로 대역하여 국문으로 표기하여 놓았다.

서울대학교 고도서에 소장되어 있는 이 『方言類釋』은 원래 徐命膺(1716~1786)이 편찬한 『保晚齋剩簡』에 수록되어 있다. 『保晚齋剩簡』은 寫本으로 전하는데 원래 25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13책만 전하는 零本이다. 『方言類釋』은 이 『保晚齋剩簡』의 第24冊과 第25冊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中國 淸 蒙 倭와 접해 있어 왕래가 많은데, 司譯院을 설치하여 四國方言을 여러가지로 강습하여 왔지만 이 방언들의 변화로 중국인을 만나도 한 마디도 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正祖 2년(1778년)에 譯官 洪命福 등을 시켜 그 당시에 소용이 될 수 있는 四國方言을 類別로 분류하여 국문으로 釋을 달아 『方言類釋』이라고 하였다.

이 『方言類釋』은 天文 時令 地輿 등 모두 87개 部門으로 나뉘어 있고 표제어수는 모두 5,200항이다. 그리고 이들 표제어 중 ‘中州鄉語’라 되어 있는 항(天文, 親屬 등 모두 31개의 部門의 말미에 실려 있다) 194항을 빼면 우리 말 釋이나 讀음을 쓴 표제어는 모두 5,006개이다. 이 5,200개 중 50여개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가 훼손되어 있으며, 그 중 20여개는 그 再構조차 힘들다. 그리고 釋대신 漢字로 釋을 쓴 것도 하나가 보인다.

이 『方言類釋』은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蒙語類解』 『蒙語類解補』 『同文類解』 『倭語類解』 등을 정리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배열에 있어서, 그리고 國文釋의 표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은 弘文閣에서 影印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影印本은 교정된 곳을 확인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 52. 隣語大方

『隣語大方』은 1790년(正祖 14년)에 倭學堂上譯官 崔麒齡에 의하여 10권 5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된 日本語 學習用 教材다. 이 책에는 序文이나 跋文 또는 刊記가 없어 그 編者나 간행시기 등을 직접 알 수 없으나 承政院日記의 기록으로 그 刊行年代와 이 책을 만든 사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隣語大方』은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이다. 日本語 原文을 草體로 적은 뒤에 이의 諺解文이 실려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어 원문과 언해문이 모두 한자를 혼용하고 있다. 원문을 數行씩 먼저 쓰고 한 자씩 낮추어서 언해문을 썼다. 그리고 日本語의 漢字 單語를 欄上에 쓴 것이 보이는데 이 右便에는 카타카나로 그 일본음을 단 것도 보인다. 흥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53. 蒙語類解

漢語 語彙를 우리말로 적고 다시 蒙古語 發音을 한글로 적은 蒙學書의 하나이다. 원간본은 언제 편찬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1768년에 李億成이 改刊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 개간본 역시 전하지 않는다. 현존본으로는 서울대 규장각본이 유일하고 日本의 東京外國語大學에 그 寫本이 있다. 규장각본은 1790년에 方孝彥에 의해서 改訂된 重刊本이다. 이 책은 上卷, 下卷, 補編, 語錄解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3책이다. 각 漢語 어휘를 漢字로 싣고 그 아래에 한국어, 몽고어를 한글로 써 놓았다. 이 책은 1971년에 서울대 출판부에서 영인하였다.

## 54. 武藝圖譜通志諺解

『武藝圖譜通志諺解』는 1790년(正祖 14년)에 李德懋, 朴齊家 등이 正祖의 명

을 받들어 편찬한 『武藝圖譜通志』를 언해하여 같은 해에 壯勇營에서 1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해 낸 兵書다.

李德懋, 朴齊家 등이 1598년(宣祖 31년)에 韓嶠에 의하여 이루어진 『武藝諸譜』와 1759년(英祖 35년)에 지은 『武藝新譜』를 增修하여 武藝를 집대성한 책이 『武藝圖譜通志』인데 이 책에 있는 總譜 중 그림을 빼고 원문만 언해한 것이 바로 『武藝圖譜通志諺解』인 것이다. 漢文으로 된 原文은 4권 4책으로 되어 있으나 언해본은 不分卷 1책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武藝圖譜通志』는 언해본이 있는 것은 5권 5책으로, 그리고 언해본이 없는 것은 4권 4책으로 되어 있고, 언해본만 있는 것은 不分卷 1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언해본이 원본보다 그 분량이 훨씬 적어져서 71장 밖에 안되는 것은 언해본이 한문본 『武藝圖譜通志』를 모두 언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문에는 武藝의 여러 동작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명칭을 붙이고 설명한 ‘總譜’와, 이 동작들을 그림으로 圖解한 ‘總圖’가 있는데 언해본에서는 이 ‘總圖’와 ‘總譜’중에서 ‘總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언해하였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總圖’는 언해본에는 없다.

이 언해본은 한자가 쓰이어 있고 그 한자의 아래에 그 해당 漢字음이 달려 있다. 이 책은 흥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55. 增修無冤錄諺解

正祖 때 具允明 등에 의하여 編纂된 『增修無冤錄大全』을 1790年(正祖 14年)에 正祖의 명에 의하여 徐有隣 등이 諺解하여 1792년에 3卷 2冊의 藝閣印書體 活字本으로 刊行한 法醫學書다.

『增修無冤錄諺解』는 屍體檢案의 대상이 되는 시체의 시기적인 변화로부터 死因의 규명에 이르기까지의 法醫學的 감정을 필요로 한 각종 사항과, 검사 종류의 재료 또는 檢案書式의 수속 절차에 대한 기록까지 취급되어 있는 法醫學的 裁判의 專門書다.

따라서 이 책은 法醫學史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18세기말의 국어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身體語彙의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卷之一 61장부터 65장까지는 신체에 대한 그림과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 가람문고, 한국

정신문화연구원(舊藏書閣 圖書), 고려대 晩松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다. 홍문각에서 영인하였다.

### 56. 敬信錄諺解

道敎의 文獻에서 因果應報의 敬信에 대한 것을 모은 漢文本 『敬信錄』 중에서 긴요한 것을 뽑고, 또 『丹桂籍』이란 문헌에서 중요한 두 조목을 뽑아, 『敬信錄』에 해당하는 것을 앞에 언해하여 붙이고 『丹桂籍』에서 뽑은 것은 책의 끝 부분에 언해하여 붙여, 1796년(正祖 20년)에 京畿道 楊州에 있는 佛巖寺에서 洪泰運의 글씨를 版下로 하여 木版 1책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敬信錄’이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좋지 않은 일을 징계하는 말씀과 일을 기록한 책이란 뜻이다. 이 책은 漢文 原文이 없고 諺解文만 실려 있다. 諺解文도 書名과 각 經文의 제목만 漢字로 썼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이 『敬信錄諺釋』에는 異本이 있다. 題簽이 『敬信錄諺解』로 되어 있는 이 책은 1880년(高宗 17년)에 高宗의 명으로 출판된 것이지만, 1796년본의 板木을 다시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포기나 版式 등에 차이점이 전혀 없다.

이 책의 板木은 아직도 佛巖寺에 보존되어 있어서 이 판목을 刷出하여 弘文閣에서 영인한 바가 있다. 이를 다시 1986년에 太學社에서 영인하였다.

### 57. 眞說因果曲

1796년(정조 20년)에 因果에 대한 것을 모은 因果曲을 언해하여 경기도 양주에 있는 불암사에서 洪泰運의 글씨를 板下로 하여 복판본 1책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上之二十年嘉慶丙辰冬開刊楊州天寶山佛巖寺藏板”이란 간기가 있어서 위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간기는 『敬信錄諺釋』의 刊記인 “上之二十季嘉慶丙辰仲秋開刊楊州天寶山佛巖寺藏板”과 유사하고 또 그 글씨가 동일하여 『敬信錄諺釋』을 간행한 뒤에 곧이어 홍태운의 글씨로 간행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동일한 판본의 책이 어떻게 합철되어 있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뒤에 『佛說諸經抄』와 합철되어 있는 것과 이것이 합철되어 있지 않은 것의 두 가지다. 앞의 것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

장본으로 위의 간기가 적혀 있다. 위의 것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전설인과곡’ 외에 ‘修善曲’과 ‘勸善曲’ 그리고 ‘參禪曲’만 합쳐져 있는 것인데, 이 ‘참선곡’의 끝에 “甲寅孟冬法性山無心客印慧信士 智瑩述”이란 기록이 있다. 모두 홍태운의 글씨를 판하로 하여 간행한 것이다. 어느 책이나 『전설인과곡』의 판은 동일하다. 책의 제목과 각 頌의 제목에만 한자가 쓰여졌을 뿐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정신록언석』과 동일하다.

### 58. 五倫行實圖

『五倫行實圖』는 1797년(正祖 21년)에 正祖가 沈象奎 等에게 命하여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의 두 책을 합하여 언해문에 수정을 가해서 整理銅活字로 간행한 책이다. 모두 5권 4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所藏本에 따라 5권 5책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 『五倫行實圖』는 初刊 후 62년만인 1859년(哲宗 10년)에 重刊된 목판본이 있다. 이 중간본은 한문 원문과 함께 언해문의 모습은 初刊本에 비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거의 複刻을 하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五倫行實圖는 1972년에 李民樹 선생의 解題와 現代語譯을 붙여 乙酉文化社에서 영인하였다. 그리고 홍문각에서도 영인한 적이 있다.

### 59. 才物譜・廣才物譜

李晩永(號는 成之)이 1798년(정조 22년)에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8권 4책의 필사본이다. 책의 앞에 있는 金庭堅의 序文에서 이 책의 편찬목적과 유래, 내용 등을 알 수 있다.

才物譜란 才譜와 物譜를 합친 말이다. 따라서 이 책은 三才의 譜 즉 天譜 地譜 人譜와 物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약 130~140개의 小部門으로 再分類하고 있다. 표제어를 한자로 쓰고 그 밑에 한문 또는 한글로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이 한글로 설명한 부분이 곧 국어 연구의 중요하고도 방대한 어휘자료가 된다. 이 재물보는 『萬物錄』 또는 『萬物草』 등의 冊題를 가진 여러 가지 이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정신문화연구원(구 장서각 도서) 서울대 규장각, 가람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이본들은 약간의 차이들

이 있으나 규장각본은 국립중앙도서관본에 보이는 표제어보다 적어서, 좀더 줄어들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규장각본에는 국립중앙도서관본에 보이지 않는 특이한 사항들이 들어 있다(예컨대 考據諸書 등). 한글 표기부분도 서로 異同이 보이거나 어디까지나 표기상의 異同이지 어휘상의 異同이 아니다. 규장각본에 한글표기가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舊藏書閣本은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유사하다. 原撰本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위의 것들은 모두 轉寫本으로 보인다. 舊藏書閣本은 冊題가 『萬物草』로 되어 있는데, 1835~1869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대 가람문고에는 『廣才物譜』라 되어 있는 또 한가지의 異本이 있다. 한글 표기가 다른 재물보에 비해 많은 편이며 표기상으로 보아 재물보보다 후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을 1979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도서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0. 濟衆新編

『濟衆新編』은 太醫 康命吉이 正祖의 명을 받아 古今의 醫書를 참고해서 엮어 1799년(正祖 23년)에 8권 5책의 활자본으로 간행해낸 醫書다. 『濟衆新編』은 許浚의 『東醫寶鑑』이 지니는 短點인, 글이 번잡스럽고 뜻이 중복되며 소루한 것이 많은 점을 수정하고, 諸方을 널리 모으되 번잡한 것은 버리고 긴요한 것만을 취하여 原編 8권과 目錄 1권을 합하여 9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濟衆新編』의 卷之八은 藥性歌다. 이 藥性歌는 중요한 藥物의 효용을 4言 4句로 엮어서 기억하기 쉽게 한 것으로 原 303首와 增 83首로 모두 386首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藥性歌의 한 首 한 首마다 그 아래에 小字의 한글로 藥物名을 쓰고 있어서 이것이 국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이 책의 原刊本인 活字本은 성균관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이의 複刻本인 木版本도 현존한다.

이 『濟衆新編』에는 여러 異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이본들은 한결같이 刊記가 明示되어 있지 않다. 모두 木版本들인데 匡郭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 魚尾가 上黑魚尾인 것도 있다(서울대 규장각 7645). 모두 四周雙邊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어떤 異本은 康命吉의 跋文이 卷八의 末尾에 있지 않고 제 1책의 末尾에 붙어 있기도 하고 李秉模의 序文이 빠져 있기도 하다(筆者 所藏本). 그러나 한글표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어떤 異本을 대하더라도 卷八의 藥性歌에 보이는 藥物名의 한글표기는 원간본의 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1935년에 京城 廣韓書林에서 鉛印本으로 나온 『濟衆新編』(1책)은 예외다. 그리고 1965년에 杏林書院에서 나온 영인본도 예외다. 왜냐하면 이것은 1935년의 廣韓書林本을 영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藥性歌만 1986년에 태학사에서 영인하였다.

### 61. 漢語抄

『漢語抄』는 中國語 단어를 한글 또는 漢文으로, 그리고 中國語 단어를 滿州語로 註釋한 譯學의 類書다. 天地人의 3책으로 되어 있는 서울대 奎章閣 所藏의 筆寫本이다. 序文이나 跋文이 없어 編纂年代 및 筆寫年代는 알 수 없다. 역시 編纂者도 알 수 없다.

한자로 된 中國語 單語마다 그 오른 쪽에 그 俗音을 한글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된 韓國語 또는 漢文으로 뜻풀이를 해놓았으나 제 2책의 뒤에 붙어 있는 ‘淸語抄’ 부분에서는 漢字音은 표시하지 않고 한글로 전사된 滿州語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 筆寫本은 編輯이 완료되지 않은 自筆原稿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漢語抄’의 부분에 漢字音 표기가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 ‘淸語抄’가 제 3책의 끝에 있지 않고 엉뚱하게 제 2책의 끝부분에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이 中國語와 滿州語에 관한 類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譯學者일 것임에 틀림이 없겠으나 그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책에 보이는 한국어의 표기에 口蓋音化가 거의 전면적으로 나타난다거나 語頭 된소리의 표기에 주로 ㅅ계 합용병서를 사용하고 ㅅ의 된소리에 ㅅ과 ㅂ을 쓰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이 필사본은 18세기 중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譯語類解』나 『同文類解』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그 標題

項目이 거의 새로워서 위의 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 책은 語彙史 연구 및 滿州語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 62. 倭語類解

洪舜明이 일본인 雨森芳洲에게 물어서 만든 일본어 학습서로서, 2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刊記가 없으나 下卷의 말미에 역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서 18세기 말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책은 다른 四學의 譯學書類와는 그 계통을 달리한다. 漢字語 또는 한자어휘를 上段에 標題語로 실었는데, 그 1字類는 千字文이나 類合의 방식을 따라 한자의 釋과 音을 달아 놓았고, 2字類 이상은 그 한자의 朝鮮漢字音을 달아 놓고 있다. 물론 日本漢字音도 실고 있다. 이 『倭語類解』는 이본이 있다.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金澤庄三郎舊藏本이다. 전자는 책의 끝에 讐整官, 書寫官, 監印官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반해, 후자는 伊路波間音이 들어 있다. 전자는 1988년에 태학사에서, 그리고 후자는 1958년에 日本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國文學研究室에서 영인한 바 있고, 또한 大提閣과 現代社에서 각각 영인한 바 있다. 또한 이 책을 底本으로 하여 金澤庄三郎은 1912년에 『日語類解』를, 그리고 Medhurst. W.H는 1835년에 『朝鮮偉國字會』를 편찬해내기도 하였다(서울대 도서관 소장). 『日語類解』는 역시 日本의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國文學研究室에서 『외어유해』와 함께 영인한 바 있고, 또한 現代社에서 이를 영인한 바 있다. 『朝鮮偉國字會』도 일본의 雄松堂書店에서 영인하였고, 弘文閣에서도 영인하였다.

## 63. 注生延嗣妙應眞經

淸나라의 天眞眞人이 1734년에 편찬하여 간행한 『注生延嗣妙應眞經』을 언해하여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해 낸 道敎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인데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고, 먹물 대신 朱砂를 사용하여 간행하였다. 앞에 ‘턴룡진인’이 쓴 ‘주심연스묘응진경서’가 있고, 책의 끝에 “赤厯榴夏 恩津宋氏敬梓”라 기록하고 있어, 이 책의 간행자나 언해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題簽은 ‘延嗣經’이라 되어 있어 이 책의 약칭을 알 수 있다. 표기법으로 보아 18세기말의 문헌으로 보인다.



## 64. 古文眞寶諺解

宋의 黃堅이 편찬한 『詳說古文眞寶大全』을 언해한 책으로 ‘詳說古文眞寶諺解’라고도 한다. 현존하는 것은 모두 필사본이다. 前集 12권, 後集 10권, 모두 22권으로 되어 있고 부록으로 ‘疊山先生批點文章軌範諺解’가 붙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전집 권3~권12, 후집 권1~권10, 그리고 문장체법(목록에는 7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권하지 않았음) 이어서, 결국 22권 중 권1, 권2가 없는 20권의 落秩本이다. 그나마도 전집 권3, 권4, 후집 권1, 권3에는 한문 원문만 있고 그 언해문은 없다. 현재 고려대학교 六堂文庫에 전집 권2~권12, 후집 권1~권6의 17권 8책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후집 권7~권10의 4권과 문장체법이 모두 6책으로 소장되어 있다. 六堂文庫本과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의 筆體는 同一人의 것이다. 筆寫記가 없어 그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언해에 나타난 한글표기로 추정하여 보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의 전집 3권과 후집 권1의 앞에 조선시대의 서화가인 尹用求(1853~1939)가 68세 때에 써 놓은 ‘古文眞寶諺解落秩補充事實’에 들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도 이 책이 19세기 초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서도 그러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언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책은 한문 原文이 그 漢字音과 토를 한글로 써서 앞에 실려 있고 그 뒤에 한글로 된 언해문이 실려 있다. 언해문에도 한자와 한자음을 달아 놓고 있다.

이 『古文眞寶諺解』에는 異本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구 장서각 소장본)인데 역시 필사본이다. 前集 권1~권5, 권7, 後集 권6, 권7만이 현존하는 8권 8책의 낙질본이다. 이 책은 그 한글표기나 藏書印으로 보아 영조 연간(1694~1762)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필사자 및 언해자는 알 수 없다. 앞에서 말한 『古文眞寶諺解』와는 달리 『고문진보』를 모두 언해한 것이 아니고 발췌하여 언해한 것이다. 上下 2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단에는 漢字音을 한글로 먼저 쓰고 그 좌측에 한문 원문을 실고 있고, 下段에는 上段의 한문을 한글로 언해하여 놓고 있다. 구 장서각 소장본이 앞에 말한 六堂文庫本에 비해 意譯體이다.

전자를 1986년에 高麗書林에서 4책으로 묶어 영인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大提閣에서 영인하였다.

### 65. 物 譜

李哲煥, 李載威 두父子가 共著한 物名 語彙集으로서 필사본으로 전한다. 1770년경에 李哲煥에 의해 草稿가 이루어지고 1802년에 李載威가 體系化하여 26개 부분으로 정리 분류하였다. 이 필사본에는 현재까지 두 가지 異本이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한글학회 소장본이요 또 하나는 李暉衡氏 소장본이다. 이 두 책의 분류는 동일하나 後者가 標題語를 더 細目化한 것에 차이가 있다. 前者는 景文社에서 柳僖의 物名攷와 함께 영인하였으며, 後者는 李家源 교수에 의하여 人文科學 5집에 活字로 소개되었다. 전자의 영인본은 『物譜』의 뒤에 합철되어 있는 『蒙牖』를 빼어 버리고 영인한 것이다. 이 『蒙牖』에도 ‘動物訓’, ‘植物訓’, ‘雜物訓’, ‘雜名訓’, ‘語錄’, ‘我東吏讀’로 분류된 곳에 物名과 吏讀가 실려 있어서 국어 어휘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 66. 新刊增補三略直解

明나라 劉寅이 지은 『三略直解』를 언해하여 1805년(순조 5년)에 上中下 3권 1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한 兵書이다. 黃石公이 張子房에게 傳授한 ‘三略’을 劉寅이 풀이한 책이 『三略直解』다. 현재 전하는 언해본의 最古本은 ‘上之五年乙丑仲夏京城廣通坊重刊’이란 刊記가 있는 책이다. 이 간기의 ‘重刊’이란 漢文本 간행을 原刊으로 보고 붙였을 가능성이 많다. 이 책은 앞에 劉寅의 原序가 있고 이어서 閱史釋義 및 增補凡例가 있다. 그 위에 本文이 시작되는데 漢文 原文에는 한글로 된 註가 달려 있다. 언해문은 雙行으로 되어 있다. 欄上에는 漢文으로 註釋을 달아 놓았다. 그리고 끝에 片音이 달려 있다. 諺解本은 위의 책 이외에 “癸酉新刊嶺營”의 刊記가 있는 것과 翰南書林에서 간행한 것, 그리고 간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각각 1873년(高宗 10년), 1917년에 간행된 것들로 보이는데, 모두 木版本으로서 그 책제목이 ‘新刊增補三略直解’에서 ‘直解’가 빠진 ‘新刊增補三略’이다. 1805년판과 그 이후의 판들은 언해문의 한글표기에 차이를 보인다. 後代本들은 ‘增補凡例’의 내용도 다르다. 한글표기는 1805년판이 後代本에 비해 整齊되어 있다. 後代本の 한글표기 중 특징적인 것은 對格助詞를 거의 모두 ‘툄’로 통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1805년판을 弘文閣에서 影印하였다.

### 67. 蒙諭篇

『蒙諭篇』은 중인 출신인 張混이 편찬하여 1810년(純祖 10년)에 2권 1책의 小型筆書體 木活字本으로 간행해낸 日用百科의 성격을 띤 일종의 類書이다.

그 한자 단어의 아래에 거기에 해당하는 국어어휘를 한글로 써 놓은 부분이 있어서 국어연구에 도움을 준다. 모두 381개가 나타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국어어휘는 그 당시의 서울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8. 物名攷

1820年代에 柳僖가 여러가지의 物名을 모아 한글 또는 漢文으로 풀이하러 만든 일종의 語彙辭典이다. 원래 柳僖(1773~1837)의 著述을 모은, 100여권이나 되는 遺稿인 『文通』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物名類考’라고도 한다. 5권 1책의 筆寫本인데 현재 그 原本은 전하지 않고 이를 轉寫한 것으로 보이는, 國立中央圖書館本, 서울대학교 가람문고본, 日本의 鮎貝房之進 所藏本の 세 가지 異本이 전한다. 그러나 標題語의 순서와 그 풀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고 한글표기에서 표기법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物譜』나 『才物譜』 등과 마찬가지로 漢字로 된 標題語 밑에 한글 또는 漢字로 그 物名을 써 놓았다. 有情類 無情類 不動類 不靜類로 분류하고 이들을 다시 羽蟲 獸族 등의 15개 部類로 분류하였다. 한글로 풀이된 標題語가 모두 1660개나 되는 이 책은 李晚永이 편찬한 『才物譜』의 ‘物譜’와 ‘地譜’에서 그 標題語와 註解를 취사선택하여 정리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物譜(특히 卷7, 卷8)를 有情類와 無情類로 분류하고 地譜를 不動類와 不靜類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柳僖의 物名攷와 李晚永의 才物譜가 모두 또 다른 어떤 한 文獻을 참조함으로써 이 두 문헌이 유사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鮎貝房之進 소장본은 長問光雲의 손을 거쳐서 高橋亨에게 기증된 책을 轉寫하여 1960년~1961년에 朝鮮學報 16책 20집에 영인 수록하였고 이를 景文社에서 묶어 다시 영인하였다.

柳僖의 『物名攷』와는 다른 종류의 物名考가 있다. 筆寫本の 物名考 중 가장 많이 전하고 있는 책이다. ‘物名括’ 또는 ‘物名類’라고도 한다. 異本에

따라 대개 1,000개 내지 1,600개 정도의 標題語가 실려 있는데 草木類 鳥獸類 蟲魚類 등 18개의 部類로 분류되어 있다. 이 物名考는 茶山 鄭若鏞이 지은 것이다. 茶山의 與猶堂全書에 筆寫本 ‘靑館物名考’가 전하고 있고 秦東赫 教授 所藏의 『物名括』의 表紙에 ‘茶山’이라 墨書가 되어 있으며, 茶山의 與猶堂全書에 ‘竹欄物名考跋文’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靑館物名考』와 『物名考』는 그 標題語의 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분류는 동일하다. 단지 『物名考』의 草木類가 靑館物名考에는 野草類라 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一蓑文庫에는 1884년(高宗 21년)의 筆寫記를 가진 것도 있다. 柳僖의 『物名考』나 茶山의 『物名考』는 모두 國語語彙研究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 69. 諺音捷考

『諺音捷考』는 1846년(憲宗 12년)에 詩谷病夫(또는 石帆)가 우리말의 소리가 漢字音을 구별하기 위한 便覽으로 만든 2권 1책의 筆寫本이다. 이 책은 원래 가람 李秉岐 선생의 所藏本이었었다. 그러나 현재 이 책은 현재 한국장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諺音捷考 卷上’은 漢字나 漢字語를 標題語로 하고 그 아래에 이에 대한 국어를 한글로 풀이하고 있다. 그 배열순서는 표제항인 한자나 한자어의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풀이한 한글의 초성에 따른 것이다. 그 순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ㆆ, ㆏, ㆑, ㆒, ㆓, ㆔, ㆕, ㆖, ㆗, ㆘, ㆙, ㆚, ㆛, ㆜, ㆝, ㆞, ㆟”이다. 그러나 각 자모에서의 배열순서는 없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어의 어휘를 일정한 배열순서에 의하여 배열한 것은 이 『諺音捷考』가 최초일 것이다.

卷下에는 漢字音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책에서는 19세기 중엽의 언어사실을 많이 알려 주고 있다. 즉 方言에서 語頭의 ‘ㄱ’모음 앞에서 ‘ㄴ’이 탈락하고, t 구개음화 및 h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ㅇ’가 非音韻化되었음을 알려 준다. 그리고 한글 子母의 初聲字 명칭도 기록되어 있다(ㄱ:기음, ㄴ:니음, ㄷ:디음, ㄹ:리음, ㅁ:미음, ㅂ:비음, ㅅ:시음, ㅇ:이음).

## 70. 太上感應篇圖說諺解

『太上感應篇圖說諺解』는 中國의 『太上感應篇圖說』을 崔理煥이 編纂 讎하여 1852년(哲宗 3년)에 5권 5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해 낸 道敎書이다.

이 책은 善惡의 業報를 實證하는 史實들을 善報와 惡報로 分類하여 각 史實마다 圖像과 漢文 原文 그리고 이에 대한 國文翻譯을 붙여 5권으로 分類하고 이를 仁 義 禮 智 信의 5책으로 分冊 刊行한 것이다.

이 책은 1880년(高宗 17년)에 高宗의 命으로 다시 간행되었으나 다시 複刻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있는 版本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나 國文의 表記에 있어서나 또는 版式에서의 차이점은 하나도 없다.

異本으로 ‘太上感應篇(태상감응편)’의 讎해가 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舊 藏書閣所藏本)으로서 筆寫本이다. 10권 10책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 원문과 圖像은 없고 讎해만 있는데 이 讎해도 한자는 하나도 없고 한글로만 되어 있다. 이 筆寫本은 筆寫年記가 없어 筆寫年代를 알 수 없으나 그 표기로 보아 19세기 중기 이후로 추정된다. 그러나 더 確鑿한 檢토를 요한다. 물론 편찬자나 讎해자도 알 수 없다. 이 자료는 1986년 太學社에서 影印하여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71. 事類博解

沈老淳의 外祖父 李公이 후학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편찬한 2권 1책의 類書이다. 1855년(哲宗 6년)에 聲隱 金炳圭가 그 아들의 친구인 심노순에게서 빌어 베껴 쓴 것이 전한다. 成均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筆寫本으로서, 才物譜, 蒙諭篇 등과 유사한 어휘집으로서 萬物의 名稱을 漢字로 쓰고 이에 대해 한자 또는 한글로 풀이하였다. 上卷에는 天文部 地理部 人道部上, 下卷에는 人道部下 禽獸部 草木部가 있어 5개의 部類로 크게 분류하고 이들을 다시 天道門 事親門 등의 75개 部門으로 분류하여 天地人의 三才의 譜와 物譜를 합친 才物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部門의 분류는 전혀 다르다. 目錄 2장, 上卷의 本文 47장, 下卷의 本文 44장, 그리고 일종의 跋文 1장 만으로 되어 있다. 이 跋文은 李公이 아닌 金炳圭가 쓴 것인데 이 글을

쓴 筆寫記가 있다(皇明崇禎紀元后二百十一年旃蒙單闕五月晦日). 이것으로서 1838년에 쓴 것인지 ‘旃蒙單闕’인 乙卯 즉 1855년에 쓴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 해의 干支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1855년에 필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저작연대는 이보다 앞설 것으로 보인다. 한글표기를 통하여 19세기의 음운현상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어휘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 72. 醫宗損益

『醫宗損益』은 惠庵 黃度淵이 편찬하여 1868년(高宗 5년)에 武橋 贊化堂에서 12권 7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해 낸 醫書다. 古今의 醫書가 허다하여 이들을 다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하여 許浚의 『東醫寶鑑』을 기본으로 해서 당시의 실정에 맞도록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여(損益하여) 만든 것이다. 黃度淵이 원래 1867년(高宗 4년)에 『醫宗損益』 6권(6책을 말함)을 편찬하였는데 그 이듬해에 藥性 1권(1책을 말함)을 또 만들어서 이를 『醫宗損益附餘』라 이름붙여, 모두 7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제 7책의 藥性歌는 康命吉의 『濟衆新編』에 보이는 藥性歌와 마찬가지로 藥性の 要點을 歌詞로 엮어 기억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었는데, 각 藥性歌의 밑에 藥物名을 한글로 써 놓았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한글 표기의 鄉藥名이다. 한글로 쓴 鄉藥名이 약 280여개가 보이는데 『濟衆新編』이나 『東醫寶鑑』에 보이는 것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다. 1986년에 藥性歌단을 太學社에서 영인하였다.

## 73. 閨閣叢書

『閨閣叢書』는 憑虛閣 李氏가 婦女子들을 위하여 그 生活指針이 되는 일을 한글로 적어, 親和室에서 1869년(高宗 6년)에 不分卷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目錄과 本文을 합쳐 모두 30장으로 되어 있는 자그마한 책이다. 모두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한글로 된 문장은 각 단어 내지 어절 별로 구분하여 각 단어 및 어절의 오른쪽 아래에 구뎛점을 찍어 놓았다. 이 책은 부녀자가 지켜야 할 가정생활에 필요한 衣食住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판본 1책의 『閨閣叢書』는 『憑虛閣全書』 중의 ‘閨閣叢書’를 다시 정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정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한글 표기도 憑虛閣 生前의 표기가 아닌 출판 당시의 표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특히 이 책에는 구뒳점이 찍혀 있어서, 오늘날 띄어쓰기의 源流를 짐작하게 한다. 日本의 金澤文庫에는 筆寫本 『閨閣叢書』도 전하고 있다. 이것을 鄭良婉 教授가 校註하여 『朝鮮學報』 71輯과 75輯에 上 下로 나누어 連載를 한 것이 있다.

이 『閨閣叢書』는 특히 女性學에서 많이 언급된 문헌이다. 따라서 여러번 소개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現代語譯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러번 영인도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은 新丘文化社의 新丘文庫 5로 영인된 것과 弘文閣에서 『女訓諺解』와 合本하여 영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74. 易言諺解

『易言諺解』는 1880년에 修信使 金弘集이 日本에 갔다가 돌아 올 때에 淸나라의 鄭觀應(1841~1923)이 지은 漢文本 『易言』을 淸國의 外交官인 黃遵憲으로부터 구하여 가지고 온 것을 1883년에 이를 復刻하고, 다시 1883년(高宗 20년) 이후에 한글로 諺解하여 4권 4책의 新式活字本(整理字本)으로 간행한 책이다.

연세대학교 도서관과 서강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全秩이,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舊 藏書閣本)에 卷1~卷3이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다. 刊記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문본 『易言』이 간행된 이후의 일일 것이다. 이 문헌은 『朝鮮學報』 117輯~118輯에 連載 影印되었고 홍문각에서 1992년에 다시 영인하였다.

#### 75. 南宮桂籍

『南宮桂籍』은 關聖教에서 일컫는 三聖(關聖帝君, 文昌帝君, 孚佑帝君) 중 文昌帝君의 經文과 이 經文을 믿어 얻은 靈驗記를 모아 언해하여 1876년(高宗 13년)에 간행한 1책의 목판본이다. 『南宮桂籍』의 ‘南宮’은 文昌帝君의 聖位를 모신 곳이다. 서울대 고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영남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언해가 붙어 있는 이 『南宮桂籍』 이외에 漢文本 8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책은 1986년에 太學社에서 다른 도교 자료와 함께 영인하였다.

### 76. 三聖訓經

『三聖訓經』은 高宗의 명으로 關聖帝君, 文昌帝君, 孚佑帝君, 즉 三聖의 經文을 모아 한 책으로 묶어 언해하여 1880년(高宗 17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三聖訓經’의 三聖은 ‘關聖帝君’이라 일컫는 蜀漢의 關羽와 ‘文昌帝君’이라 일컫는 晉의 張亞와 ‘孚佑帝君’이라 일컫는 唐의 呂巖을 말하는데, 이 세 사람이 生前에 공덕을 이루었기 때문에 天宮에 올라가서 帝君의 지위를 얻어, 下界의 인간들이 善한 일을 하면 福을 주고 惡한 일을 하면 禍와 罰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일종의 道敎에 관계된 책이다. 이 『三聖訓經』은 서울대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1986년에 太學社에서 다른 道敎資料와 함께 영인하였다.

### 77. 過化存神

高宗의 命으로 關聖敎의 經典을 모아 한 책으로 묶어 언해하여 1880년(高宗 17년)에 1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漢文 原文의 經典을 앞에 실고 그 뒤에 언해를 붙이는 방식으로 6가지의 글(‘覺世眞經’ ‘救劫文’ ‘附對聯句’ ‘靈驗記’ ‘敎諭文’ ‘拜心聖訓’)을 실고 있으나 ‘敎諭文’과 ‘拜心聖訓’에는 漢文 原文만 있을 뿐 언해가 없다.

이 책은 異本도 있다. 李秉根 敎授 所藏本은 그 내용의 배열에 차이가 있다. 즉 李秉根 敎授 소장본은 漢文 原文을 모두 앞에 몰아놓고 뒤에 諺解文을 한꺼번에 실은 것이다. 그러나 그 표기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 『過化存神』은 서울대 奎章閣을 비롯한 곳곳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86년에 太學社에서 다른 道敎 關係 자료와 함께 影印하였다.

### 78. 龍君靈蹟誌

金世琛이 龍君에 관한 古今의 靈驗을 모아 한 책으로 묶어 편찬한 한문본 『龍君靈蹟誌』를 언해하여 1881년(高宗 18년)에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모두 26장으로 되어 있다. 龍君이란 보통 龍神 또는 龍王이라 하는



데 부역을 담당한 神이다. 모두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모두 45장의 조그마한 책이다. 연세대,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한글학회, 서울대 등의 도서관과 筆者를 비롯한 여러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이 『竈君靈蹟誌』는 1986년 다른 道教 資料와 함께 太學社에서 영인되었다.

### 79. 敬惜字紙文

동문사 內에 만들어진 契인 ‘惜字會’란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책을 아끼도록 訓導하기 위하여 만든 일종의 契案을 李景在가 언해하여 1882년(高宗 19년)에 경군문(京軍門?)에서 1책의 活字本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글자 쓴 종이, 즉 책을 아끼고, 합부로 버리거나 休紙化하는 것을 막는 禮는 원래 關聖敎의 經文 중 ‘文昌帝君’의 ‘敬字紙文’에 나와 있는 것이어서, 이 책은 道教 또는 關聖敎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책은 ‘惜字會’란 모임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원래 漢文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漢文 原文의 모습은 알 길이 없다. 서울대 古圖書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1986년에 太學社에서 다른 道教資料와 함께 影印되었다.

### 80. 女小學

『女小學』은 壺山 朴文鎬가 1882년(高宗 19年)에 婦女子들에게 필요한 글을 모아 諺解한 6卷 6冊의 筆寫本이다.

現存하고 있는 異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897年 亞細亞文化社에서 출판한 壺山集의 제4책에 影印되어 있는 女小學의 底本이 그것인데 壺山의 後孫이 소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弘文閣 影印本이다.

이 두 異本은 거의 차이가 없다. 筆體까지도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弘文閣 影印本은 漢文 原文에 朱書로 點을 찍어 놓고, 그 欄上에 한글로 口訣을 써 놓았다는 점이 있는데 비하여 亞細亞文化社 影印本은 그러한 朱點과 口訣이 없다는 점일 뿐이다. 이 두 가지 異本은 그 筆寫年代가 각각 다르다. 亞細亞文化社 影印本은 1915년에 筆寫한 것으로 보이고, 弘文閣 影印本은 1932년에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그 編纂形式은 매우 특이하여 앞에 原文인 漢字를 쓰고 그 漢字 하나하나의 아래에 일일이 모두 한글로 釋음을 달고 그 原文의 다음에 한글로 諺解

를 하였다. 原文에는 漢字와 그 釋音을 달았지만, 諺解文은 순수히 한글로만 썼다. 이와 같은 형식은 東京大學本 百聯抄解와 거의 동일한 형식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諺解方式은 대개 婦女子를 대상으로 한 문헌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漢字音만을 달아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예컨대 女訓諺解 등), 이 책은 漢字 하나하나에 모두 釋音을 달고 있어서 매우 특징적이다. 그런데 그 釋音도 規範的인 釋音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文脈에 따라 다르게 달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 『女小學』에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漢字의 釋音과 諺解文은 十九世紀末의 忠北方言을 반영하고 있어서, 國語史的인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方言史 資料를 찾아 보기 힘든 현실에서 이와 같이 方言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의 출현은 國語學界를 위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81. 關聖帝君明聖經諺解

關羽를 모시는 關聖敎의 『明聖經』을 언해하여 1883년(高宗 20년)에 務本堂에서 1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해 낸 책이다. 이 책은 ‘關聖帝君應驗明聖經’ 또는 ‘明聖經諺解’라고도 불리우는데, 忠誠과 孝道와 清簾과 節介의 네 가지를 기린 道家書의 일종으로 身心의 修養을 위해 엮은 책이다. 이 책은 1855년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跋文을 쓴 年代이며, 또 漢文本을 간행하였을 때의 연대이다. 이 책에는 樂善堂版의 異本이 있으나 務本堂의 版本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 책은 1986년에 다른 道教關係 자료와 함께 太學社에서 영인하였다.

### 82. 華音啓蒙諺解

1883년(고종 20년)에 당시의 譯官이었던 李應憲이 같은 해에 편찬한 『華音啓蒙』을 언해하여 간행한 중국어 會話書이다. 全史字의 古活字本으로 2권 1책이다. 언해자는 알 수 없으나 이응헌이 언해한 것으로 보인다. “光緒九年癸未印出”이란 刊記를 가지고 있는 책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구 장서각 소장본). 『華音啓蒙』에 들어 있는 序와 附錄 부분을 제외하고 本文만 언해하였다. 한문 원문은 會話體로 되어 있는데, 漢字의 아래에 白

話文의 漢字音을 한글로 써 놓았다. 원문의 뒤에 한자와 한글을 혼용한 언해문이 이어지는데, 언해문의 한자에는 한자음을 달지 않았다. 이 책의 내용 일부가 『華語類抄』에 ‘華音啓蒙諺解上’이라 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실려 있다. 19세기말의 중국 한자음과 국어를 연구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 83. 關聖帝君五倫經

『關聖帝君五倫經』은 關聖敎의 經文인 『五倫經』을 언해하여 1884년(高宗 21년)에 不分卷 1책의 木版本으로 간행해낸 책이다. 앞에 한문 원문을 한꺼번에 실고 그 뒤에 언해문을 한꺼번에 실고 있다. ‘父子章’ ‘君臣章’ ‘夫婦章’ ‘朋友章’의 순서로 되어 있다. 1986년에 다른 道敎關係 자료와 함께 太學社에서 영인하였다.

### 84. 正蒙類語

1884년(고종 21)에 李承熙가 『千字文』의 四字韻語法과 茶山의 『兒學編』에 보이는 類輯之法을 본따서 한자 1,008자를 目과 類로 분류하고 각 한자의 아래에 한글로 그 音과 釋을 써 놓은 책이다. 목판본으로 不分卷 1책이다. 앞에 이 책의 편찬동기를 적은 序文이 있다. 그 끝에 “朝鮮開國四百九十三年甲申冬至大溪書”란 글이 있어서 이책의 편찬연도와 편찬자를 알 수 있다. 본문은 5개의 目으로 분류하고 각 目을 또 여러 類로 분류하였는데 一理生의 目에는 大本類 등의 15類로, 萬化散殊에는 稟生類 등의 12류로, 名器錯宗에는 人生名類 등의 12류로, 帝王立政에는 授職類 등의 12류로, 聖學明道에는 心體類 등의 12류로 분류하여 모두 5目 63類로 분류하였다. 각 類에 16개의 한자가 있으므로 모두 1,008자가 있는 셈이다.

이 책의 저자인 이승희는 그 고향이 慶北 星州郡 月項面 寒溪이어서 이 지역의 언어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 85. 方藥合編

惠庵 黃道淵이 지은 『醫方活套』와 『損益本草』를 합하여, 그의 아들 黃泌秀가 편술해서 1884년(고종 21)에 不分卷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한 의서이

다. 『의방촬투』와 『손익본초』 이외에 證脈要訣, 用藥綱領, 石隱補方 등 10여종을 더하여 편집하였다.

上中下 三段에 나누어 醫方과 藥方을 일목요연하게 집성하였는데, 이것은 淸나라 王忍庵의 『醫方集解』의 편집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책은 1885년(고종 22)에 『證脈方藥合編』이란 이름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乙酉仲秋冶洞新刊”, “乙酉仲秋美洞新刊”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 이후에도 1916년에 完山新刊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 책에는 한글로 쓰인 415개의 鄉藥名이 실려 있어서 국어사 연구 및 국어어휘 연구에 도움을 준다. 특히 『東醫寶鑑』, 『濟衆新編』과 비교가 된다.

대부분의 한글표기는 황필수가 『醫宗損益』의 藥性歌에 나타나는 한글표기와 동일하다. 스계, 日계 합용병서가 다 사용되고 있으며 유성음 사이의 ㅎ이 탈락하는 예도 보인다.

## 86. 物名纂

1890년(高宗 27년) 柳暘川이 현재의 全北 井邑郡 雨順面 楚江里에서 쓴 일종의 類書로서 1책의 筆寫本이다. 필자의 所藏本인 이 책은 表紙題가 ‘蘊各書錄’이라 되어 있다. 책의 앞 18장이 ‘物名纂’으로 되어 있다. ‘物名攷’나 ‘物譜’와 유사한 것으로서 漢字로 된 標題語 밑에 한글 또는 漢字로 그 物名을 써 놓았다. 그리고 간혹 그 出典이나 典據를 밝혀 놓기도 하였다. 天類, 人類, 身類, 衣類, 雜語類, 疾病類, 雜戲類 등 모두 39개의 部類로 分類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物名攷’나 ‘物譜’의 분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약 1,270여개의 標題項으로 되어 있다. 19세기말의 古阜地域語(지금의 井邑地域語)를 반영하고 있어서 t 口蓋音化는 물론 k 口蓋音化를 보이며, i 母音의 逆行同化도 보인다. 그리고 많은 方言語彙를 보여 준다. 音韻史, 語彙史, 方言史 研究에 큰 도움을 준다.

## 87. 國漢會語

1895년에 李準榮, 鄭珉, 李琪榮, 李明善, 姜礎熙에 의하여 우리 국어를 標題語로 하여 편찬된 國語辭典이다. 이 『國漢會語』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筆寫本으로서 乾 坤의 2책으로 되어 있다. 乾·坤 각 책에는 약 17,000개씩

의 표제항이 있다. 그러나 乾冊은 草稿이고 坤冊은 이 초고를 정리·증보한 것이기 때문에 乾冊에 들어 있는 약 25,000개의 표제항이 이 사전의 語彙數가 된다.

坤冊의 서문에서 보듯이 『國漢會語』는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져서 四隣이 講和할 때에 언어를 통해서 그 情誼의 親疎가 결정되므로 통역할 기준과 틀을 설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편찬된 것이다.

『國漢會語』의 편찬동기는 그 이후에 나온 朝鮮光文會의 ‘말모이’나 朝鮮總督部의 ‘朝鮮語辭典’과는 다르다. ‘말모이’는 민족계몽사상에 입각하여 만들어졌고, ‘朝鮮語辭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정책적 바탕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國漢會語』는 외국과의 交流를 통한 新文化·文明의 導入이라는 개화기의 개화사상에서 편찬된 것이다. 이것은 1895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일치한다. 1894년의 갑오경장에서부터 1895년의 乙未改革에 이르기까지의 개화초기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 『國漢會語』의 표제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制度 및 學問에 대한 用語가 매우 많이 실려 있는 것이다.

『國漢會語』가 이 사전의 표제어에 대해 國文으로 註解를 하지 않고 漢字·漢文으로 풀이를 한 것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해석될 수 있다. 1894년에 法令이나 勅令은 모두 國文으로 本을 삼고 漢文으로 번역하여 붙이며 후 國漢文을 混用한다는 勅令 등은 “『國漢會語』의 「國文으로 語之柄을 建하며 漢文으로 語之義을 釋하고”와 상통되는 것이다. 『國漢會語』는 문자 그대로 ‘國文을 漢文으로 풀이한 말모음’이라는 뜻이다. 이 사전에서는 ‘國文’이란 말을 사용하고 ‘諺文’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國文으로 語之柄을 建하며”, “國文의 隔入相生한 本例을 踵하고”, “國文解” 등에서 보이는데 이것은 개인의 글이나 저술에서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會語’란 말이 뒤에 ‘말모이’와 연관되어 주목되는 것이다.

이 『國漢會語』는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를 표제어로 하여 만든 최초의 국어사전이다. 따라서 이 『國漢會語』는 사전편찬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國漢會語』는 그 가치가 우선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전의 표기법을 통하여 19세기말의 音韻論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또한 語彙史와 國語學史 研究에도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이 책은 1986년에 太學社에서 영인하였다.

### 88. 音韻捷考

『音韻捷考』는 漢字 11,419개를 漢字音別로 분류하여 나열하고 각각의 한자에 그 釋을 달아 놓은 漢字字典의 일종이다. 1책 56장의 筆寫本으로서, 序文이나 跋文도 없고 筆寫記도 없다. 그래서 작자나 편자를 알 수 없고 筆寫年代도 알 수 없다. 단지 한글 자모의 가나다순 배열이나 한글표기법으로 보아서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漢字의 음이나 釋의 표기로 보아 中部方言을 사용하는 사람이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윗부분에 한글로 漢字음을 써 놓고 그 아래에 그 漢字음에 해당하는 漢字를 하나씩 쓴 후 그 한자의 바로 아래쪽에 다시 한글로 그 釋을 달아 놓았다. 한자음은 맨 위에 표시하여서, 각 한자의 음을 일일이 써 놓지 않고 단순히 동일하다는 의미인 ‘|’로 표시하여 놓았다. 가끔 한자로 풀이한 예도 보인다.

이 책은 『諺音捷考』와 함께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한자나 국어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諺音捷考』는 ‘諺’과 ‘音’에 대한 것인데, 이때의 ‘諺’은 한글을 의미하는 것이고 ‘音’은 한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諺音捷考』는 한글 내지 국어에 대한 것과 한자음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한 문헌인데 비해 『音韻捷考』는 漢字, 특히 그 釋과 음을 풀이한 문헌인 것이다.

이 책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舊 藏書閣) 소장본이다. 이 책은 『諺音捷考』와 함께 國語와 漢字音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특히 한자를 한자음별로 분류한 漢字字典이 이 『音韻捷考』라면 漢字釋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책이 『諺音捷考』이기 때문이다.

## Ⅳ. 맺는 말

근대국어를 연구하기 위한 문헌자료는 위에 제시한 자료 이외에도 훨씬 많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다 소개하고 종합화하는 일은 아직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실제로 국어사 중 근대국어를 연구하기 위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지만, 제한된 지면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간단한 목록화를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의 해제에서 제외된 것 중에서 중요한 문헌들이 있다. 그것은 문학작품, 그중에서도 방각본 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헌들은 다른 언해본에 비하여 생생한 국어 자료를 제시하여 준다. 이들 문헌에 대해서는 이제껏 국문학자들만이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이제는 국어학자들도 국어사 연구자료의 寶庫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들 자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 : 단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